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I

#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I

###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총괄** | 조 의 섭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 혜 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이 영 숙 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성** | 심 혜 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김 혜 리, 신 영 임, 백 경 업 소득법인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강 민 지, 태 정 림, 박 지 원  
김 세 화, 채 은 동, 김 효 경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박 연 서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 진 우 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지원·편집** | 조 혜 정 소득법인세분석과 행정실무원  
김 지 이 재산소득세분석과 행정실무원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시리즈는 국회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 02) 788-4744 | income41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7. 11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http://www.nabo.go.kr)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7. 10. 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수입의 회복속도가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경상성장률 전망(4.6%)을 상당 폭 상회하는 국세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빠른 개선세는 소득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 하였던 법인세수의 반등과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따른 관련 세수의 높은 증가세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세입여건의 양호한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견 다행스러운 일이나 2018년 세입예산안에서 짚어보아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입전망과 실적간의 오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8회계연도 및 2017~2021년간 총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행정부와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세입예산상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2018회계연도 예산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 〈17~21년 NABO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감률 (2017~2021)
총수입	429.4 (6.9)	447.6 (4.2)	471.6 (5.4)	491.4 (4.2)	513.3 (4.5)	4.6
국세수입	260.4 (7.4)	272.1 (4.5)	290.6 (6.8)	303.4 (4.4)	317.7 (4.7)	5.1
- 소득세	72.9	75.7	81.6	86.7	92.0	6.0
- 법인세	58.1	63.1	69.7	72.1	75.2	6.7
- 부가가치세	66.0	68.7	73.2	77.4	82.1	5.6
세외수입	25.5 (8.5)	26.3 (3.0)	27.0 (2.7)	27.7 (2.5)	28.6 (3.3)	2.9
기금수입	143.5 (5.8)	149.2 (4.0)	154.0 (3.3)	160.3 (4.1)	167.0 (4.2)	3.9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평균 [합 계]
NABO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4.6)
	국세수입	260.4	272.1	290.6	303.4	317.7	(5.1)
	세외수입	25.5	26.3	27.0	27.7	28.6	(2.9)
	기금수입	143.5	149.2	154.0	160.3	167.0	(3.9)
	경상성장률	4.6	4.4	4.8	4.7	4.6	(4.6)
	국세탄성치	1.61	1.04	1.40	0.94	1.03	1.20
행정부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5.0) <sup>1)</sup>
	국세수입	251.1	268.2	287.6	301.0	315.0	(5.8) <sup>2)</sup>
	세외수입	26.4	26.7	28.1	27.4	26.7	(0.3)
	기금수입	145.6	152.2	155.7	163.6	171.8	(4.2)
	경상성장률	4.6	4.5	4.9	4.9	4.9	(4.8)
	국세탄성치	0.74	1.51	1.47	0.96	0.94	1.12
차이 (NABO-행정부)	총수입	6.3	0.5	0.2	-0.6	-0.2	[6.1]
	국세수입	9.3	3.9	3.0	2.4	2.7	[21.3]
	세외수입	-0.9	-0.4	-1.1	0.3	1.9	[-0.1]
	기금수입	-2.2	-3.1	-1.7	-3.3	-4.8	[-15.0]

주: 1) '17년 추경예산기준임, '17년 본예산(414.3조원)기준 '17~'21년 연평균 증가율 5.5%

2) '17년 추경예산기준임, '17년 본예산(242.3조원)기준 '17~'21년 연평균 증가율 6.8%

1. ( )는 연평균 증감률



## 요약 및 총평

- ◇ 정부는 2018년 총수입을 2017년 추경(423.1조원)대비 24.0조원(+5.7%) 증액한 447.1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2017년 추경예산(251.1조원)대비 17.1조원(6.8%) 증액한 268.2조원
- ◇ 2018년 NABO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47.1조원)을 0.5조원 상회하는 447.6조원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정부 예산안(268.2조원)에 비해 3.9조원 상회할 전망이나, 국민연금 등 국세외수입이 정부안에 비해 3.4조원 하회할 전망

## I. 2018년 총수입 전망

### 1. 2017년 총수입 전망

- 2017년 총수입: 429.4조원으로 추경예산(423.1조원)을 6.3조원 초과(본예산 대비 +15.1조원)할 전망
- 국세수입은 260.4조원으로,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2016년대비 17.8조원(+7.4%) 증가하고, 추경예산(251.1조원)을 9.3조원(3.7%) 상회할 전망
  - 2016년 본예산(242.3조원) 대비로는 18.1조원(7.2%) 초과할 전망
  - 기업실적 호조 및 수입 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건조한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
- 세외수입은 25.5조원으로, 2016년대비 2.0조원(8.5%) 증가하고 추경예산(26.4조원)대비로는 0.9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저금리 등으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예산(7.1조원)대비 0.8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 기금수입은 143.5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으로 2016년대비 7.9조원 증가하고 추경예산(145.6조원)에 비해서는 2.2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수가 정부 계획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여금수입이 예산(62.0조원)에 비해 0.9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한 것 등에 기인

## 2. 2018년 총수입 전망

### ■ 2018년 총수입: 447.6조원으로 2017년대비 18.2조원(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2017년대비 11.7조원(+4.5%) 증가한 272.1조원으로 전망
  - 국세수입 증가율 4.5%는 경상성장률 둔화(4.6%→4.4%)와 전년의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7.4%)에 비해 소폭 둔화
- 세외수입은 2017년대비 0.8조원(+3.0%) 증가한 26.3조원으로 전망
  -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개선 및 배당확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실적 개선 등에 기인
- 기금수입은 2017년대비 5.7조원(+4.0%) 증가한 149.2조원으로 전망
  - 명목임금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 공무원연금 및 고용보험의 요율인상 등 제도변화 요인이 작용

## 3. 정부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 ■ NABO 총수입 전망은 447.6조원으로 행정부 총수입 예산안(447.1조원)을 0.5조원 상회할 전망

- NABO 국세수입 전망은 272.1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68.2조원)을 3.9조원 상회할 전망
  -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7.4%→4.5%)될 것으로 예상되나, '18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7년 국세수입을 NABO가 행정부보다 9.3조원(3.7%) 높게 전망함에 기인

- 2017년 GDP성장률 전망치(실질/경상, %): (행정부)3.0/4.5 (NABO)2.8/4.4
  - 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 (행정부) 6.8% (NABO) 4.5%
- 세목별로는 소득세수(+2.7조원)와 부가가치세수(+1.3조원)가 행정부 전망치를 상회
- NABO 세외수입 전망은 26.3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6.7조원)대비 0.4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연례적으로 부족 수납되었던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익 및 벌금·몰수금·과태료 등을 정부 예산안보다 낮게 전망하는 데 기인
- NABO 기금수입 전망은 149.2조원으로, 정부 예산안(152.2조원)에 비해 3.1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보험료 및 운용수입을 정부계획보다 낮게 전망하는 데 기인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증가율이 2010년 5.6%에서 2016년 3.0%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가입수를 정부 계획(8.7%)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표] 2017~2018년 총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2016	2017				2018			
	실적	예산 <sup>1)</sup>	NABO 전망	전년 대비	예산 <sup>1)</sup> 대비	예산안	NABO 전망	전년 대비	예산안 대비
	A	B	C	C-A	C-B	D	E	E-C	E-D
<b>총수입(Ⅰ+Ⅱ)</b>	<b>401.7</b>	<b>423.1</b>	<b>429.4</b>	<b>27.7</b>	<b>6.3</b>	<b>447.1</b>	<b>447.6</b>	<b>18.2</b>	<b>0.5</b>
국세(Ⅰ)	242.6	251.1	260.4	17.8	9.3	268.2	272.1	11.7	3.9
- 소득세	68.5	69.6	72.9	4.4	3.3	73.0	75.7	2.8	2.7
- 법인세	52.1	57.3	58.1	5.9	0.8	63.1	63.1	5.1	0.0
- 부가가치세	61.8	62.6	66.0	4.2	3.4	67.3	68.7	2.7	1.3
- 개별소비세	8.9	9.0	10.0	1.1	1.0	10.1	10.4	0.4	0.3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6	0.3	0.2	16.4	15.8	0.2	-0.6
- 관세	8.0	9.0	8.6	0.6	-0.4	9.4	9.0	0.4	-0.4
국세외수입(Ⅱ)	159.1	172.0	169.0	9.9	-3.0	178.9	175.5	6.5	-3.4
세외수입	23.5	26.4	25.5	2.0	-0.9	26.7	26.3	0.8	-0.4
기금수입	135.6	145.6	143.5	7.9	-2.2	152.2	149.2	5.7	-3.1
- 사회보장기여금 <sup>2)</sup>	56.9	62.0	61.1	4.2	-0.9	69.3	67.7	6.6	-1.6

주: 1) 2017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여금수입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4. 2018년 세입예산안 평가

##### ■ 현 시점에서 판단시 2018년 세입예산안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국세수입은 정부가 우리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

- NABO 2018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272.1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68.2조원)을 3.9조원(1.5%) 상회
- 다만 금리 인상 본격화 등에 따른 자산시장의 호조세 약화 등 불확실성 상존

[표] 2018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국세수입

(단위: 조원, %)

	정부		NABO		차이(NABO-정부)	
	2018 예산안	증감률 (2017 예산 <sup>1)</sup> 대비)	2018 전망	증감률 (2017 전망대비)	차이	차이율
국 세 수 입	268.2	6.8	272.1	4.5	3.9	1.5
일반회계	260.9	6.9	265.1	4.6	4.2	1.6
내국세	228.0	7.0	233.4	4.8	5.4	2.3
1. 소득세	73.0	4.9	75.7	3.9	2.7	3.7
2. 법인세	63.1	10.2	63.1	8.7	0.0	0.0
3. 상속증여세	6.2	2.1	6.9	4.0	0.8	12.3
4. 부가가치세	67.3	7.7	68.7	4.0	1.3	2.0
5. 개별소비세	10.1	11.9	10.4	4.0	0.3	2.8
6. 증권거래세	4.0	-0.5	3.9	-2.5	-0.1	-1.3
7. 인 지 세	0.9	5.9	0.9	-5.4	-0.1	-8.2
8. 과년도수입	3.4	-8.2	3.8	-6.5	0.4	11.3
교통에너지환경세	16.4	6.6	15.8	1.6	-0.6	-3.5
관   세	9.4	4.8	9.0	5.1	-0.4	-4.0
교 육 세	5.2	3.4	5.4	2.8	0.1	2.3
종합부동산세	1.8	25.8	1.5	2.5	-0.3	-16.6
특별회계	7.0	2.8	7.0	1.0	-0.3	-4.0
주   세	3.5	4.8	3.3	1.7	-0.2	-4.8
농 특 세	3.8	0.9	3.7	0.4	-0.1	-3.2

주: 1) 2017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일부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의 연례적 과다계상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어 해당 수입전망의 현실화 필요
-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납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
  - 국민연금 가입자수 및 기금운용수익률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수입전망을 현실화할 필요

[표] 국민연금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계획 및 실적 추이

(단위: 조원, %)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						
	계획 (A)	증감률	실적/전망 (B)	증감률	차이 (C=B-A)	차이율 (C/A)
2013	32.8	17.3	31.9	5.9	-0.9	-2.9
2014	35.9	9.3	34.1	6.8	-1.8	-5.1
2015	38.5	7.3	36.4	6.9	-2.1	-5.5
2016	41.2	6.9	39.0	7.2	-2.1	-5.2
2017	42.4	3.0	41.9 <sup>1)</sup>	7.3	-0.5	-1.3
2018	46.4	9.4	44.7 <sup>1)</sup>	6.8	-1.7	-3.7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계획 (A)	증감률	실적/전망 (B)	증감률	차이 (C=B-A)	차이율 (C/A)
2013	6.9	10.7	7.0	9.4	0.1	0.8
2014	7.2	3.1	6.2	-11.6	-1.0	-13.5
2015	7.5	4.1	6.2	-0.5	-1.3	-17.3
2016	7.5	0.6	5.8	-5.8	-1.7	-22.6
2017	7.1	-4.8	6.4 <sup>1)</sup>	10.1	-0.8	-10.6
2018	6.9	-3.2	6.7 <sup>1)</sup>	5.4	-0.2	-2.6

주: 1) 2017년과 2018년 실적은 NABO의 전망치를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5. 2017~2021년 총수입 전망

### ■ 2017~2021년 총수입: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4.6%로 정부안(5.0%)을 하회할 전망

- 국세수입은 2017년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연평균 5.1%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5.8%)<sup>1)</sup>에 비해서는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약화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 상존
    - － 자산시장 호조세는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위험과 주택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하방위험 요인 확대
- 세외수입은 배당성향 증가, 금리 인상가능성에 따른 수익률 개선 등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의 중기계획상 증가율(연평균 0.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경상이전수입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성장 등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 계획상 증가율(연평균 4.2%)을 하회할 전망
  - 국민연금기여금 수입 및 기금운용수입을 정부안보다 낮게 전망하는 데 기인

1) 2017년 국세수입을 추경예산(251.1조원)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 증가율이며, 본예산(242.3조원) 대비로는 6.8%

[표] 2017~2021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평균 [합계]
NABO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4.6)
	국세수입	260.4	272.1	290.6	303.4	317.7	(5.1)
	국세외수입	169.0	175.5	181.0	188.0	195.6	(3.7)
	세외수입	25.5	26.3	27.0	27.7	28.6	(2.9)
	기금수입	143.5	149.2	154.0	160.3	167.0	(3.9)
	- 사회보장기여금	61.1	67.7	72.0	76.3	80.7	(7.2)
	경상성장률	4.6	4.4	4.8	4.7	4.6	(4.6)
	국세탄성치	1.61	1.04	1.40	0.94	1.03	1.20
행정부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5.0) <sup>1)</sup>
	국세수입	251.1	268.2	287.6	301.0	315.0	(5.8) <sup>2)</sup>
	국세외수입	172.0	178.9	183.8	191.0	198.5	(3.6)
	세외수입	26.4	26.7	28.1	27.4	26.7	(0.3)
	기금수입	145.6	152.2	155.7	163.6	171.8	(4.2)
	- 사회보장기여금	62.0	69.3	73.9	78.3	82.9	(7.5)
	경상성장률	4.6	4.5	4.9	4.9	4.9	(4.8)
	국세탄성치	0.74	1.51	1.47	0.96	0.94	1.12
차이 (NABO -행정부)	총수입	6.3	0.5	0.2	-0.6	-0.2	[6.1]
	국세수입	9.3	3.9	3.0	2.4	2.7	[21.3]
	국세외수입	-3.0	-3.4	-2.8	-3.0	-2.9	[-15.1]
	세외수입	-0.9	-0.4	-1.1	0.3	1.9	[-0.1]
	기금수입	-2.2	-3.1	-1.7	-3.3	-4.8	[-15.0]
	- 사회보장기여금	-0.9	-1.6	-2.0	-2.0	-2.2	[-8.7]

주: 1) '17년 추경기준 '17~'21년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414.3조원 기준 '17~'21년 연평균 증가율 5.5%

2) '17년 추경기준 '17~'21년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242.3조원 기준 '17~'21년 연평균 증가율 6.8%

1. (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II. 세입예산안 주요사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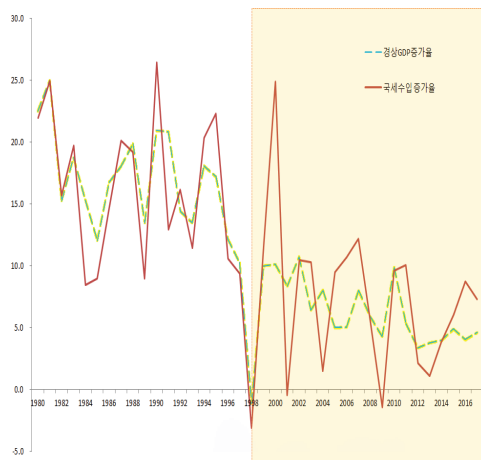
### 1. 국세수입 변동성 확대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 국세수입 실적의 경기에 대한 변동폭 확대로 세수오차가 커지면서 재정운용 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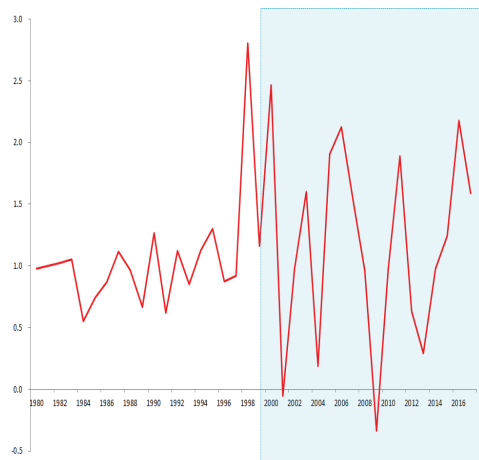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경기변동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민감도 확대

- 1980~1990년대 국세수입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경상GDP 증가율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경상GDP 증가율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 폭이 커지고 일부 연도에서는 둘 간의 방향성도 불일치

[그림] 경상GDP 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



[그림] 국세탄성치 추이



□ 국세수입의 변동성 확대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 비중의 증가, 과세기반의 집중도 심화, 누진도 강화 등에 기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법인세율 체계의 다층구조화 등은 조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세수안정성 측면에서는 재정수입이 경기 침체시에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시사

- 국세수입 실적의 변동성은 세수오차의 확대로 이어져 이로 인한 재정운용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 재정지출의 추세적 증가 및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조세행정에 대한 의존도 확대 등
- 국세수입 변동성 확대로 인한 재정운용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미시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추계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변동성이 높은 법인세와 자산관련세수 추계모형 개선 등을 통해 세수예측력을 제고할 필요
  - 세입상황 및 재정운용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
  - 경기 또는 세수여건이 좋을 때 안정화정책(긴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의 대칭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및 경기조절수단으로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증대
    - 우리나라 재정정책은 경기침체기에는 대체로 적절히 대응한 반면 경기호황기에는 긴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 경기침체기: 긴축정책 사용비율 23.5%, 경기상승기: 확장정책 사용비율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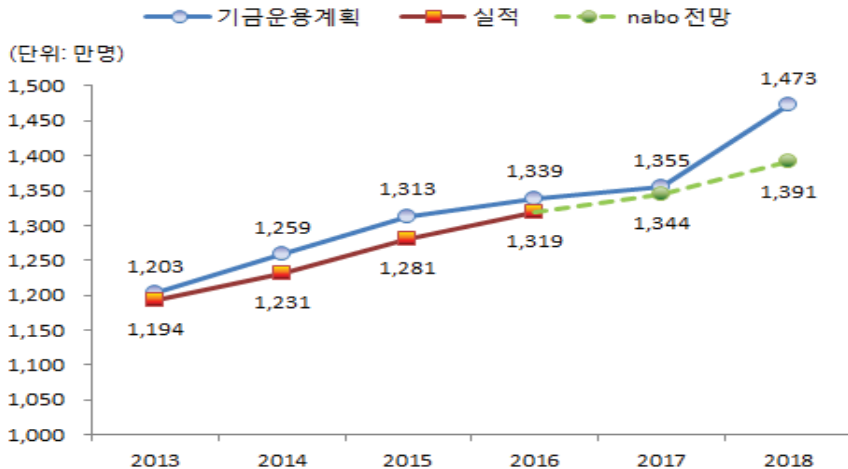
## 2.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 국민연금 기여금수입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수 추정방식 개선 필요

- 국민연금 기여금수입 계획대비 부족 수납액은 2013년 0.9조원에서 2016년 2.1조원으로 확대
  - 이는 사업장가입자수의 연례적 과대추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3~2016년 연평균 증가율은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은 연평균 6.7%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여금수입의 계획대비 수납률은 2013년 97.1%에서 2016년 94.8%로 2.3%p 하락

- 국민연금 기여금수입의 수납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가입자수 추정 방식의 개선 필요
  - 정부는 2018년에도 사업장 가입자수를 낙관적으로 예상(전년계획대비 8.7%)함에 따라 NABO와 정부의 차이는 확대(2.6조원)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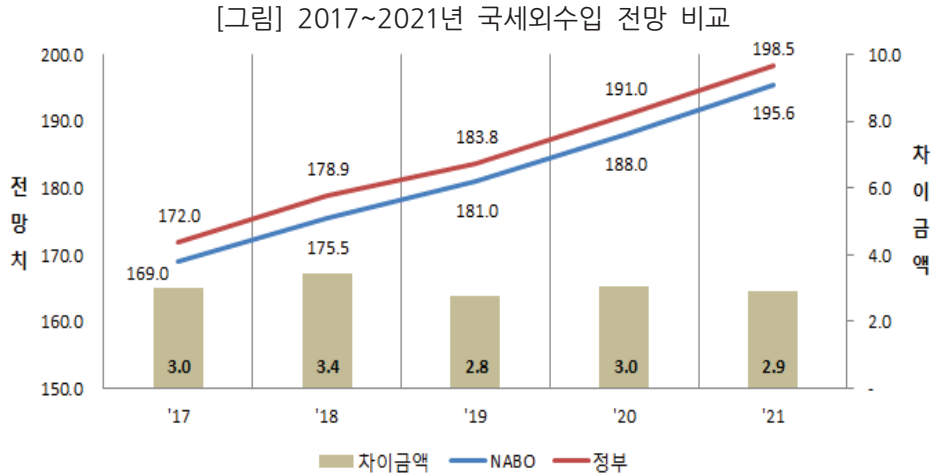
[그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계획 및 NABO 전망 비교



### 3. 국세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 ■ 국세외수입의 예결산 차이 확대는 재정수지 악화 및 사업의 집행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부족 수납액은 2013년 0.4조원에서 2016년 9.2조원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며, 2018년에도 예산대비 3.4조원 낮게 징수될 전망
  -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들에 대해 최근 수납률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에 기인
  - 세외수입에서는 주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익, 벌금·몰수금·과태료 등이, 기금수입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등이 대표적인 항목
-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부족 수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 및 사업의 집행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주: 차이금액 = 정부 전망치 - NABO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안정적인 중장기 재원대책 마련 필요

##### ■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복지제도 성숙 및 재정의 역할 확대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확대 예상
  -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
- 최근 국세수입은 법인실적 개선 및 자산시장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
  - 금리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 상존
  - 구조적 초과세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항구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제시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 사회투자 및 경기조절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유지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체계를 갖출 필요

# 차 례

## 요약 및 총평 / ix

### I. 2018년 정부 세입예산안 개관 / 1

1. 2018년 정부 세입예산안 .....	1
가. 2018년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	2
나. 2018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 .....	4
2. 2017~2021년 정부 총수입 전망 .....	8

### II. 2018년 총수입 전망 / 9

1. 2018년 거시경제 및 세수전망의 전제 .....	9
가. 2018년 거시경제 전망 .....	9
나. 2018년 세수전망의 전제 .....	10
2. 2018년 총수입 전망 .....	11
가. 총수입 .....	11
나. 국세수입 .....	14
다. 국세외수입 .....	35
3. 2018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	55
가. 총수입 .....	55
나. 국세수입 .....	56
다. 국세외수입 .....	59

### III. 2017~2021년 총수입 전망 / 63

1. 2017~2021년 중기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	63
2. 2017~2021년 총수입 전망 .....	64
가. 총수입 .....	64
나. 국세수입 .....	66
다. 국세외수입 .....	69
3. 2017~2021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76

#### IV. 세입예산안 주요사항 분석 / 79

1. 국세수입 변동성 확대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	79
가. 국세수입 실적 변동성 현황 .....	79
나. 국세수입 실적 변동성 확대원인 .....	80
다. 국세수입 실적 변동성과 재정운용 .....	82
라. 결론 .....	88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90
3. 국세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	94
4. 안정적인 중장기 재원대책 마련 필요 .....	99



## 표 차례

[표 1] 2018년 정부 총수입 예산안 .....	1
[표 2] 최근 5년간 정부 국세수입 편성 예산 증가율 .....	2
[표 3] 2018년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	3
[표 4] 최근 5년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 편성 현황 .....	4
[표 5] 2018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 .....	5
[표 6] 2017~2021년 정부 총수입 전망 .....	8
[표 7] 2017~2021년 국내경제 전망 .....	10
[표 8] 2017년 총수입 전망 .....	12
[표 9] 2018년 총수입 전망 .....	13
[표 10] 2017년 국세수입 전망 .....	16
[표 11] 기업 경영 실적 .....	21
[표 12] 외감법인의 수익성 지표 .....	21
[표 13]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거시변수 실적 .....	22
[표 14]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	23
[표 15] FTA 주요국의 수입활용율 추이 .....	24
[표 16] 2018년 국세수입 전망 .....	27
[표 17] 2018년 소득세수 전망 .....	28
[표 18] 외감법인의 수익성 지표 .....	31
[표 19] 20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대비 증감 현황: 유가증권 상장법인 기준	31
[표 20] 업태별 법인세 비중: 2015년 신고 기준 .....	31
[표 21]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거시변수 실적 및 전망 .....	32
[표 2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변화 .....	34
[표 23] 2017년 국세외수입 전망 .....	36
[표 24] 2017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	37
[표 25] 2017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	38
[표 26] 국민연금 사회보장 기여금수입 전망 오차 .....	40
[표 27]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세부항목: 2011~2017년 .....	43
[표 28] 경상이전수입 세부항목: 2012~2017년 .....	45
[표 29] 2018년 국세외수입 전망: 회계별 .....	48

[표 30]	2018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	48
[표 31]	2018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전망(NABO) .....	51
[표 32]	2018년 경상이전수입 전망(NABO) .....	53
[표 33]	2018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	55
[표 34]	2018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국세수입 .....	58
[표 35]	2018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국세외수입 .....	60
[표 36]	실질GDP, 소비, 투자, 수출입의 중기 성장 전망 및 추이 .....	63
[표 37]	2017~2021년 NABO 전망과 정부 전망 비교 .....	65
[표 38]	2017~2021년 경상GDP와 국세수입 전망(NABO) .....	66
[표 39]	2017~2021년 국세수입 전망(NABO) .....	68
[표 40]	2017~2021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	69
[표 41]	사학연금 교원 수 추이: 2013~2016년 .....	72
[표 42]	2017~2021년 NABO 전망과 정부 전망 비교 .....	77
[표 43]	세목별 비중 추이 .....	80
[표 44]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	81
[표 45]	세수결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	84
[표 46]	2018년도 국민연금 가입자유형별 기여금 수입 계획안 .....	90
[표 47]	2013~2016년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기여금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 ·	91
[표 48]	2012~2016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 계획 및 실적 현황 .....	92
[표 49]	2017~2018년 사업장가입자 가입자 수 및 기여금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 ·	93
[표 50]	국세외수입 예결산 차이 추이 .....	94
[표 51]	2018년 국세외수입 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	94
[표 52]	우정산업본부 금융영업수익 관련 현황 .....	96
[표 53]	미곡판매수입 부족수납 현황 .....	96
[표 54]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예결산 추이 .....	97
[표 55]	예결산 차이가 큰 주요 부담금 항목 .....	98
[표 56]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	99
[표 57]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 경기확장 국면 .....	100
[표 58]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 경기수축 국면 .....	100

## 그림 차례

[그림 1] 최근 5년간 정부 국세수입예산안 예결산 현황 .....	2
[그림 2] 주택가격지수와 매매거래량 추이 .....	18
[그림 3] 월별 금리 추이 .....	19
[그림 4] FTA 협정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액 증감률 추이 .....	24
[그림 5] 기준금리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	29
[그림 6] 시나리오별 원유가격 전망 .....	33
[그림 7]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 .....	49
[그림 8] NABO 전망과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비교 .....	56
[그림 9] 2017~2021년 국세외수입 전망 비교 .....	70
[그림 1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및 증가율 추이 .....	71
[그림 11] 공무원 수 및 증가율 추이: 1982~2016년 .....	75
[그림 12] 경상GDP 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 .....	79
[그림 13] 국세탄성치 추이 .....	79
[그림 14] 자산관련 세수 추이 .....	80
[그림 15] 근로소득세 누진도(소득기준) .....	81
[그림 16] 조세행정력에 의한 국세수입 조정액 규모 .....	83
[그림 17] 세수오차율과 재정지출 증가율 .....	86
[그림 18]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계획 및 NABO 전망 비교 .....	93
[그림 19] 국세수입 전망 및 실적 .....	101
[그림 20] 연차별 중기 국세수입 전망 .....	101

## 박스 차례

[BOX 1] 국세외수입의 특징 .....	6
[BOX 2] 담배 반출량 추이 .....	34
[BOX 3]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입의 연례적 세입결손 문제 .....	43
[BOX 4] 공무원연금 기여금 수입 구조 .....	54
[BOX 5] 실증분석: 세수오차와 재정지출간의 관계 .....	85
[BOX 6] 실증분석: 경기국면별 재정기조의 적절성 평가 .....	87
[BOX 7] 해외사례: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 .....	89



# I. 2018년 정부 세입예산안 개관

## 1. 2018년 정부 세입예산안

정부는 2018년 세입예산안을 2017년 추경예산대비 24.0조원(+5.7%) 증액한 447.1조원(국세수입 268.2조원, 국세외수입 178.9조원)으로 편성

- 2018년 정부 세입예산안은 2017년 추경예산(423.1조원)대비 24.0조원 (5.7%)이 증가한 447.1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268.2조원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추경예산대비 17.1조원(+6.8%) 증가
    - － 본예산(242.3조원)대비로는 25.9조원(10.7%) 증가
  - 세외수입은 26.7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의 감소(0.2조원)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수입의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0.3조원(1.0%) 증가
  - 기금수입은 152.2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향조정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높은 증가(7.3조원, 11.7%)등으로 추경 예산대비 6.6조원(4.6%) 증가

[표 1] 2018년 정부 총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

	2016 실적	2017 추경예산 (A)	2018 예산안 (B)	전년대비 (B-A)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401.7	423.1	447.1	24.0	5.7
국세수입	242.6	251.1	268.2	17.1	6.8
국세외수입	159.1	172.0	178.9	6.9	4.0
세외수입	23.5	26.4	26.7	0.3	1.0
기금수입	135.6	145.6	152.2	6.6	4.6
- 사회보장기여금	56.9	62.0	69.3	7.3	11.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가. 2018년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정부는 2018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2017년 추경예산대비 17.1조원 (+6.8%) 증가한 268.2조원으로 편성

- 2018년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은 2017년 추경예산(251.1조원)대비 17.1조원 (6.8%) 증가한 268.2조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는 260.9조원으로 추경예산대비 16.9조원(6.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3조원으로 추경예산대비 0.2조원(2.8%) 증가
    - －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실질/경상, %): 3.0/4.5, 명목임금상승률: 3.5
-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의 2017년 추경예산대비 증가율은 6.8%로, 2014~ 2017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3.4%를 상회하는 수준
  - 2014년을 제외하고 2015~2016년은 국세실적이 정부 예산을 상회하는 모습

[표 2] 최근 5년간 정부 국세수입 편성 예산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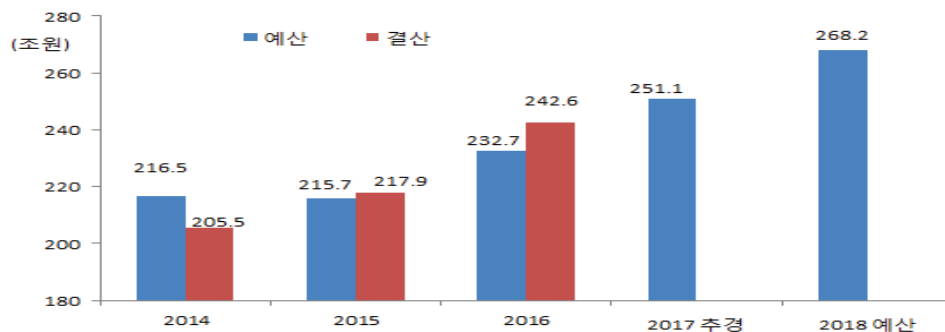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가율	3.9	2.3	3.4	3.9	6.8

주 1: 2015, 2016, 2017년은 추가경정예산기준, 2018년은 예산안 기준

2 증가율=[당해연도 예산안( $Y_{t0}$ ) -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Y_{t-1}$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Y_{t-1}$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최근 5년간 정부 국세수입예산안 예결산 현황



□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편성

- 소득세는 73.0조원으로, 경제성장 등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에 기인하여 추경예산대비 3.4조원(4.9%) 증가
- 법인세는 63.1조원으로,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라 추경예산대비 5.8조원(10.2%) 증가
- 부가가치세는 67.3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추경예산대비 4.8조원(7.7%) 증가

[표 3] 2018년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

	2016 실적	2017 추경예산 (A)	2018 예산안 (B)	전년대비 (B-A)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42.6	251.1	268.2	17.1	6.8
일반회계	235.7	244.0	260.9	16.9	6.9
내국세	206.2	213.1	228.0	14.9	7.0
1. 소득세	68.5	69.6	73.0	3.4	4.9
2. 법인세	52.1	57.3	63.1	5.8	10.2
3. 상속증여세	5.4	6.0	6.2	0.1	2.1
4. 부가가치세	61.8	62.6	67.3	4.8	7.7
5. 개별소비세	8.9	9.0	10.1	1.1	11.9
6. 증권거래세	4.5	4.0	4.0	-0.0	-0.5
7. 인 지 세	0.9	0.9	0.9	0.1	5.9
8. 과년도수입	4.1	3.8	3.4	-0.3	-8.2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6.4	1.0	6.6
관 세	8.0	9.0	9.4	0.4	4.8
교 육 세	4.9	5.1	5.2	0.2	3.4
종합부동산세	1.3	1.4	1.8	0.4	25.8
특별회계	6.8	7.1	7.3	0.2	2.8
주 세	3.2	3.3	3.5	0.2	4.8
농 특 세	3.6	3.8	3.8	0.0	0.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2018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

정부는 2018년 국세외수입 예산안을 2017년 추경예산대비 6.9조원(+4.0%) 증가한 178.9조원으로 편성

- 2018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017년 추경예산(172.0조원)대비 6.9조원 (4.0%) 증가한 178.9조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벌금및과료, 과태료 증가 등에 기인하여 추경예산(10.3조원) 대비 0.6조원(5.4%) 증가한 10.9조원으로 편성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저금리로 인해 기업특별회계영업수익의 감소 등으로 추경 예산(16.1조원)대비 0.3조원(-1.8%) 감소한 15.8조원으로 편성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145.6조원)대비 6.6조원(4.6%) 증가한 152.2조원을 편성
    - 사회보장기여금은 예산은 69.3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추경예산대비 7.3조원(11.7%) 증가
-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의 2017년 추경예산대비 증가율은 4.0%로, 2014~2017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4.0% 보다 높은 수준
  - 세외수입은 2014~2017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1.1%에서 추경예산대비 1.0% 증가로 전환
  - 반면 기금수입은 2014~2017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5.1%에서 추경예산대비 4.6%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

[표 4] 최근 5년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세외수입 <sup>1)</sup>	152.8	161.9	168.3	172.0	178.9
(증감률)	(1.6)	(5.9)	(4.0)	(2.3)	(4.0)
- 세외수입	27.3	28.3	27.2	26.4	26.7
(증감률)	(-12.2)	(3.9)	(-3.9)	(-2.9)	(1.0)
- 기금수입	125.6	133.6	141.2	145.6	152.2
(증감률)	(5.3)	(6.4)	(5.7)	(3.1)	(4.6)

주: 2015, 2016, 2017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018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2018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

	2017 추경예산 (A)	2018 예산안 (B)	전년대비(B-A)	
			증감액	증감률
국세외수입	172.0	178.9	6.9	4.0
일반회계	10.3	10.9	0.6	5.4
- 재산수입	3.3	3.3	0.0	-0.9
- 경상이전수입	5.9	6.3	0.4	7.2
-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0.7	0.9	0.1	19.6
- 수입대체경비수입	0.3	0.3	0.0	4.8
- 관유물매각대	0.1	0.1	0.0	11.7
- 용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0.0	0.0	0.0	10.6
-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	0.1	0.1	0.0	6.7
특별회계	16.1	15.8	-0.3	-1.8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7.1	6.9	-0.2	-3.2
- 재산수입	0.5	0.6	0.1	17.0
- 경상이전수입	4.6	4.4	-0.2	-3.8
-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1.7	1.7	0.0	1.2
- 수입대체경비수입	0.0	0.0	0.0	-6.1
- 관유물매각대	0.7	0.8	0.1	15.4
- 용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1.4	1.3	-0.1	-6.5
기금	145.6	152.2	6.6	4.6
- 사회보장기여금	62.0	69.3	7.3	11.7
- 재산수입	23.2	23.3	0.1	0.6
- 경상이전수입	24.8	25.5	0.7	2.8
-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6.3	6.6	0.3	5.2
- 수입대체경비수입	0.0	0.0	0.0	19.4
- 관유물매각대	3.1	1.9	-1.1	-36.8
- 용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26.3	25.6	-0.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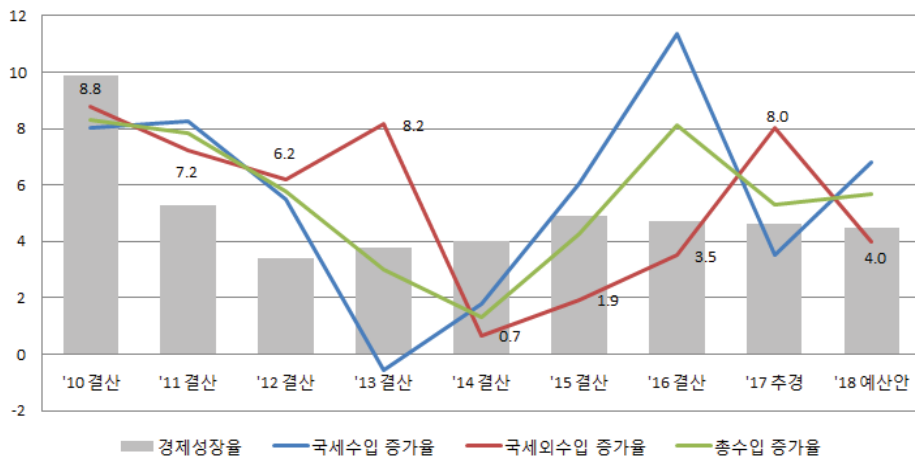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BOX 1] 국세외수입의 특징

- 국세외수입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수납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출에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목적의 세출과 연계되는 특징
- 국세외수입은 대체적으로 국세수입과 동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13년과 같이 기업은행 주식매각,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회수 등과 같은 특이요인이 작용한 해에는 증가율이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
  - 국세외수입은 정부가 보유한 주식매각 등과 관련한 제반 금융시장 여건, 다양한 국세외수입 항목별 징수노력,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되고 있어 국세수입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특징

[그림]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증가율: 2010~2018년

(단위: 전년대비 %)



주: 1. 증가율은 2010~2016년은 결산, 2017년은 추경예산, 2018년은 예산안 기준  
 2. 경제성장률은 2010~2016년은 확정치, 2017~2018년은 정부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는 국세수입과는 달리 국세외수입은 부처별로 넓게 분포하는 특징
  - 국세외수입은 연금기여금 및 보험료수입,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자산운용수입, 행정서비스에 수반하여 생기는 수수료, 벌금·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벌적 성격의 수입 등 수입의 종류가 다양

- 201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외수입 178.9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66.9조원(37.4%)이 편성된 보건복지부로, 이 외에 고용노동부 22.3조원(12.5%), 국토교통부 18.0조원(10.0%), 인사혁신처 15.2조원(8.5%), 기획재정부 9.3조원(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조원(4.8%) 순이며, 이들 6개 부처가 전체 국세외수입의 78.4%를 차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일반회계 세외수입(한은잉여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등이 국세외수입에 포함

## 2. 2017~2021년 정부 총수입 전망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수입을 2017년 423.1조원에서 2021년 513.5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정부는 2017~2021년간 총수입을 2017년 국세수입 호조세, 2018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 등에 기인하여 연평균 5.0%<sup>2)</su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2017년 251.1조원에서 2021년 315.0조원으로, 2017년 국세수입 호조세와 2018년 이후 경제성장세 유지 등에 따라 연평균 5.8%<sup>3)</su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세외수입은 2017년 172.0조원에서 2021년 198.5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개선 등에 의해 연평균 0.3% 증가할 전망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확대에 따라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

[표 6] 2017~2021년 정부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감률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5.0)
국세수입	251.1	268.2	287.6	301.0	315.0	(5.8)
국세외수입	172.0	178.9	183.8	191.0	198.5	(3.6)
세외수입	26.4	26.7	28.1	27.4	26.7	(0.3)
기금수입	145.6	152.2	155.7	163.6	171.8	(4.2)
- 사회보장기여금	62.0	69.3	73.9	78.3	82.9	(7.5)
경상성장률	4.6	4.5	4.9	4.9	4.9	(4.8)

주: 1. 2017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17년 총수입 본예산 414.3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5.5%임

3) 2017년 국세수입 본예산 242.3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6.8%임

## Ⅱ. 2018년 총수입 전망

### 1. 2018년 거시경제 및 세수전망의 전제

2018년 국내경제는 대외거래와 내수부문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0.1%p 낮아진 2.8%의 성장에 머무를 전망

#### 가. 2018년 거시경제 전망<sup>4)</sup>

- 2018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건설투자 부진과 설비투자 둔화 등에 기인하여 2017년(2.9%)대비 소폭 하락한 2.8% 성장할 전망
  -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의 하락에 따라 전년대비 0.2%p 낮아질 것으로 예상(2017년 4.6% → 2018년 4.4%)
  -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효과, 실질소득 개선세 등에 기인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는 비IT 업종의 투자부진과 전년도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대외거래는 세계경기회복세로 인해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수출 단가 하락과 전년의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고용은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예상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

4) NABO,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7.9.

## 나. 2018년 세수전망의 전제

- 2018년 국내경제는 임금증가에 기인한 민간소비 개선과 수출 물량 증가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의 국세수입 호조세를 견인한 자산 시장의 증가세 둔화는 국세수입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 존재
  - 수출물량 증가는 수출기업 영업수익 개선으로 법인세수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 민간소비 회복은 부가가치세 세수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 통관수입액의 증가세 둔화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분의 증가세 둔화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건설투자의 둔화 및 금리인상은 양도소득세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 2018년 국세수입의 완만한 증가세 전망은 수출 물량 증가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반한 것으로, 수출과 민간소비 증가세가 예상보다 작거나 더디게 나타날 경우, 세수 증가세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음

[표 7] 2017~2021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내총생산	2.8	2.9	2.8	2.9	2.8	2.7
민간소비	2.5	2.3	2.5	2.6	2.5	2.5
설비투자	2.3	10.5	3.7	4.2	3.5	3.5
건설투자	10.7	6.3	-1.8	-1.4	-0.4	0.4
총수출(물량)	2.1	2.3	2.8	3.2	2.9	2.6
총수입(물량)	4.5	6.7	4.6	3.4	3.0	2.8
상품수출(통관)	-5.9	12.9	3.1	4.3	3.5	3.3
상품수입(통관)	-6.9	15.2	5.4	5.8	5.4	5.0
실업률	3.7	3.8	3.8	3.6	3.7	3.7
소비자물가	1.0	2.0	1.9	2.1	2.2	2.2
국고채금리(3년만기)	1.4	1.8	2.2	2.5	2.6	2.7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61	1,135	1,115	1,101	1,092	1,088
GDP디플레이터	1.8	1.7	1.6	1.9	1.9	1.9
명목국내총생산	4.7	4.6	4.4	4.8	4.7	4.6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환율과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2. 2016년은 실적,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2. 2018년 총수입 전망

### 가. 총수입

#### (1) 2017년 총수입

2017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27.7조원(+6.9%) 증가한 429.4조원으로, 추경 예산을 6.3조원(+1.5%) 상회할 전망

- 2017년 총수입은 429.4조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2016년(401.7조원)대비 27.7조원(6.9%)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60.4조원으로,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7.8조원(7.4%) 증가할 전망
    - － 기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 수입분과 관세의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4.6%)을 상회하는 7.4%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국세외수입은 169.0조원으로, 명목임금상승 및 가입자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9.9조원(6.2%) 증가할 전망
  - 총수입 증가율(6.9%)은 경상성장율(4.6%)을 상회할 전망이나 전년의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될 전망
    - － 총수입 증가율(%): ('13)3.0 ('14)1.3 ('15)4.3 ('16)8.1 ('17)6.9
- 추경예산(423.1조원)대비로는 6.3조원(1.5%)을 상회할 전망
  - 국세수입 부문에서 추경예산대비 9.3조원(3.7%)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추경예산대비 3.0조원(-1.8%) 낮을 것으로 전망
    - － 정부계획보다 낮은 가입자수 증가세로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이 추경예산대비 0.9조원 낮을 전망이며, 저금리 지속으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부족수납 등으로 세외수입도 추경예산대비 0.9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

[표 8] 2017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6 실적 (A)	2017				
		예산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401.7	423.1	429.4	27.7	(6.9)	6.3
국세수입	242.6	251.1	260.4	17.8	(7.4)	9.3
국세외수입	159.1	172.0	169.0	9.9	(6.2)	-3.0
세외수입	23.5	26.4	25.5	2.0	(8.5)	-0.9
기금수입	135.6	145.6	143.5	7.9	(5.8)	-2.2
- 사회보장기여금	56.9	62.0	61.1	4.2	(7.3)	-0.9
경상성장률	4.7	4.6	4.6			

주: 1. 2017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2) 2018년 총수입

2018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18.2조원(+4.2%) 증가한 447.6조원으로, 정부 예산안을 0.5조원(+0.1%) 상회할 전망

- 2018년 총수입은 447.6조원으로, 전년에 이은 국세수입의 양호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2017년(429.4조원)대비 18.2조원(4.2%)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72.1조원으로, 전년에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1.7조원(4.5%)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 증가율 4.5%는 경상성장률 둔화와 전년의 높은 증가율(7.4%)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
  - 국세외수입은 175.5조원으로, 명목임금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와 공무원연금 및 고용보험의 요율인상 등 제도변화 요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6.5조원(3.8%) 증가할 전망



- 정부 총수입 예산안(447.1조원)대비로는 0.5조원(0.1%)을 상회할 전망
- NABO는 2018년 국세수입을 정부 예산안보다 3.9조원(1.5%) 높은 272.1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18년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7년 국세수입을 정부 예상보다 9.3조원 높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
  - NABO는 2018년 국세외수입을 정부 예산안보다 3.4조원(-1.9%) 낮은 175.5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의 계획대비 수납률 부족 등을 반영한 것에 기인
    - 세외수입은 26.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세입결손이 발생한 우정사업 금융수익 및 미곡판매수익의 수납률을 반영함에 따라 예산안(26.7조원)대비 0.4조원(-1.4%) 낮을 것으로 전망
    - 기금수입은 149.2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둔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정부 계획보다 가입자수를 적게 전망함에 따라 예산안(152.2조원)대비 3.1조원(-2.1%) 낮을 것으로 전망

[표 9] 2018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7 NABO 전망(A)	2018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안대비 (C-B) 차이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429.4	447.1	447.6	18.2	(4.2)	0.5
국세수입	260.4	268.2	272.1	11.7	(4.5)	3.9
국세외수입	169.0	178.9	175.5	6.5	(3.8)	-3.4
세외수입	25.5	26.7	26.3	0.8	(3.0)	-0.4
기금수입	143.5	152.2	149.2	5.7	(4.0)	-3.1
- 사회보장기여금	61.1	69.3	67.7	6.6	(10.8)	-1.6
경상성장률	4.6	4.5	4.4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나. 국세수입

### (1) 2017년 국세수입

2017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7.8조원(+7.4%) 증가한 260.4조원으로, 추경예산을 9.3조원(+3.7%) 상회할 전망

#### (가) 총괄

- 2017년 1~8월 국세수입은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증가세가 전체 국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세법개정 등의 요인으로 개별소비세와 상속증여세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
  - 2017년 1~8월 중 국세수입은 189.5조원(누계)으로 전년동기(172.4조원)대비 17.1조원 증가하여 9.9%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sup>5)</sup> 월별 세수증가율 역시 2월 이후 8~9%대의 호조세 지속
    - － 2017년 누계(%): (1월) 12.6 (2월) 8.2 (3월) 9.2 (4월) 8.7 (5월) 9.9 (6월) 9.8 (7월) 8.6 (8월) 9.9
  -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2016년 법인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6.0조원, 15.0%)와 명목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5.0조원, 10.7%)가 전체 국세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통관수입액 증가로 수입분 부가가치세(+4.2조원, 18.9%)도 호조세
    - － 외감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5년 -2.4%에서 2016년 1.1%로 전환되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5.2%에서 6.1%로 확대되는 등 기업 실적 증가에 따라 법인세수 증가
    - － 통관 수입증가율(원화)이 2016년 -4.6%에서 2017년 상반기 21.4%로 급증
- 2017년 국세수입은 260.4조원으로,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및 관세 증가 등으로 2016년 (242.6조원)대비 17.8조원(7.4%) 증가할 전망

5) 2016년은 EITC와 CTC를 8월에 지급(1조 6,223억원)하였으나, 2017년은 9월에 지급(1조 6,844억원)됨에 따라 지급시기 차이로 인한 일시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 1~8월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대비 15.4조원(+9.0%) 증가한 수준임

- 하반기 국세수입은 법인세·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자산세수의 증가추세는 둔화될 전망
- 2017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전년의 높은 증가율(11.3%)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7.4%로 전망되나 경상성장률(4.6%)을 상회함에 따라 국세탄성치는 1.6을 기록할 전망
  - － 국세수입증가율(%) 추이: (‘13) -0.5 (‘14) 1.8 (‘15) 6.0 (‘16) 11.3 (‘17) 7.4
  - － 국세탄성치 추이: (‘13) 0.3 (‘14) 1.0 (‘15) 1.2 (‘16) 2.2 (‘17) 1.6

□ 세목별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모든 세목에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전망

- 소득세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인세가 전년대비 5.9조원(11.4%)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수증가를 견인할 전망
- 이외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로 인해 증여건수가 증가한 상속증여세도 전년대비 1.3조원(24.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소비세 역시 민간소비 증가와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 등에 기인하여 1.1조원(12.2%) 증가할 전망
- 반면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높은 증가에도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증권거래세는 전년대비 0.4조원(-9.4%) 감소할 전망

□ 추경예산(251.1조원)대비로는 9.3조원(3.7%) 높을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세목에서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자 수 및 임금증가 등에 기인한 소득세가 추경예산대비 3.3조원(4.8%)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소비 회복과 통관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역시 추경예산대비 3.4조원(5.5%)을 초과할 전망

[표 10] 2017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6 실적(A)	2017				
		예산 <sup>1)</sup>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 <sup>1)</sup> 대비 (C-B) 차이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42.6	251.1	260.4	17.8	7.4	9.3
일반회계	235.7	244.0	253.5	17.7	7.5	9.5
내국세	206.2	213.1	222.6	16.4	8.0	9.5
1. 소득세	68.5	69.6	72.9	4.4	6.4	3.3
2. 법인세	52.1	57.3	58.1	5.9	11.4	0.8
3. 상속증여세	5.4	6.0	6.6	1.3	24.1	0.6
4. 부가가치세	61.8	62.6	66.0	4.2	6.7	3.4
5. 개별소비세	8.9	9.0	10.0	1.1	12.2	1.0
6. 증권거래세	4.5	4.0	4.0	-0.4	-9.4	0.0
7. 인 지 세	0.9	0.9	0.9	0.0	0.4	0.0
8. 과년도수입	4.1	3.8	4.1	-0.0	-1.0	0.3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6	0.3	1.8	0.2
관 세	8.0	9.0	8.6	0.6	7.0	-0.4
교 육 세	4.9	5.1	5.2	0.3	6.9	0.1
종합부동산세	1.3	1.4	1.4	0.2	11.8	0.0
특별회계	6.8	7.1	7.0	0.1	1.6	-0.2
주 세	3.2	3.3	3.3	0.1	1.9	-0.1
농 특 세	3.6	3.8	3.7	0.0	1.3	-0.1

주: 1) 2017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나) 세목별 전망

### 소득세

- 2017년 소득세는 72.9조원으로,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종합소득세의 증가(9.3%)가 예상되나, 자산시장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소세(-0.6%) 전환이 예상에 따라 전체 소득세의 증가세는 2016년보다 둔화될 전망
  - 전년대비 4.4조원(6.4%) 증가, 추경예산(69.6조원)대비 3.3조원(4.8%) 증가 예상
- (근로소득세) 임금 및 취업자 수가 각각 전년대비 3.7%,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7조원(8.6%) 증가할 전망
  - 추경예산(33.1조원)대비로는 0.6조원(1.7%) 초과 징수되는 33.7조원으로 예상
  - 2017년 8월까지의 근로소득세수는 1~7월 누적 임금상승(전년동기대비 3.0%)<sup>6)</sup> 및 취업자 수 증가(1.3%)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6조원(7.8%) 증가<sup>7)</sup>
- (종합소득세) 가계부문 영업이익증가율 상승(2015년 2.1% → 2016년 2.7%) 및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신고소득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대비 1.6조원(11.0%) 증가할 전망
  - 추경예산(15.0조원)대비로는 0.9조원(6.1%) 초과 징수되는 15.9조원으로 예상
  - 과세당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 증가율<sup>8)</sup>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2013년 6.6% → 2014년 7.7% → 2015년 11.9%)
  -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독려 및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자료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
    - 2016년부터 영세자영업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제공 대상자가 2017년 추가로 확대(2016년 157만명 → 2017년 160만명)되고, 전화신고(ARS)방식<sup>9)</sup>이 새로 도입

6)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2017.1~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7) EITC, CTC 지급시점 차이에 따른 차이 조정한 증가율(2016년 8월 지급, 2017년 9월 지급)

8) 총수입금액 증가율도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2013년 2.6% → 2014년 3.3% → 2015년 5.0%)되었는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증가율은 이보다 높게 나타남

- 전문직 등 대상으로 과거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 신고 독려(2016년 58만명/60종 → 2017년 60만명/61종)<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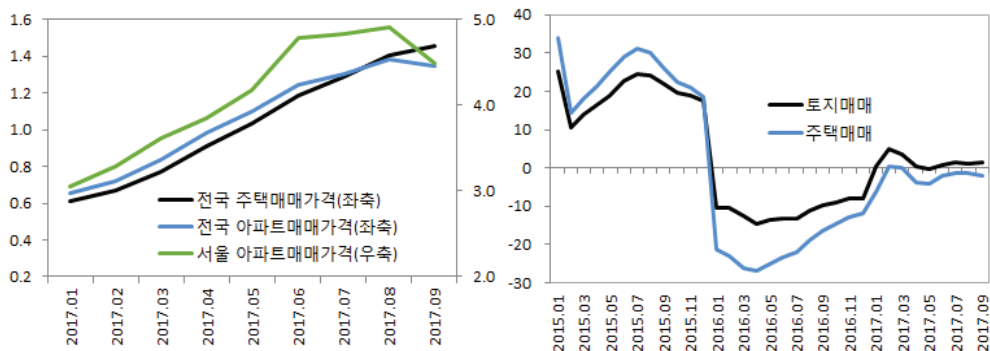
□ (양도소득세)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 및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0.09조원(-0.6%) 감소할 전망

- 추경예산(12.1조원)대비로는 1.5조원(12.3%) 높은 13.6조원으로 예상
- 주택매매 거래량은 5월까지 전년대비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6.19부동산 대책 이후 6~7월 중 증가했으나 8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
  - 주택매매거래(전년대비, %): (17. 5월) -4.7 (6월) 5.8 (7월) 3.0 (8월) -1.6 (9월) -7.9
  - 1~9월(누계) 중 주택매매거래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2.1%
-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전월대비 증가율은 5월 이후 상승세가 점차 확대 되었으나 9월 중 소폭 둔화된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처음 상승세가 둔화
  -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전월대비, %): (3월) 0.07 (5월) 0.15 (7월) 0.22 (8월) 0.26 (9월) 0.10
  -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3월) 3.6 (5월) 4.2 (7월) 4.8 (8월) 4.9 (9월) 4.5

[그림 2] 주택가격지수와 매매거래량 추이

(전년동월대비, %)

(연간누계기준,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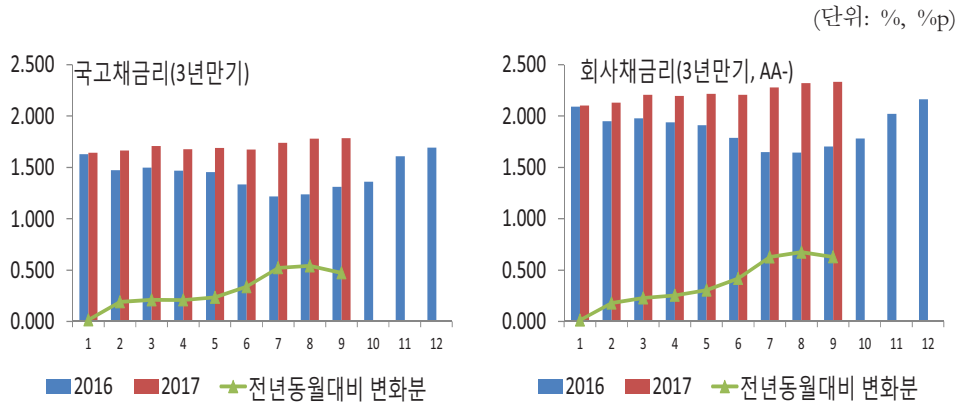


9) 정부가 작성한 신고서의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전화로 세액 확인후 신고 완료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신고편의 제고는 물론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0) 전문직 등 대상으로 2014년부터 과거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 독려(2014년 1.5만명/4종 → 2015년 53만명/40종 → 2016년 58만명/60종 → 2017년 60만명/61종)

- (이자소득세) 금리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17.6%)대비 감소율이 축소하여 전년대비 0.01조원(-0.7%) 감소할 전망
- 추경예산(2.02조원)대비로는 0.04조원(2.2%) 증가한 2.06조원으로 예상
  - 2017년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1.8%로 2016년(1.4%)대비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이자소득세 감소율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2017년 9월까지 월별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가폭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
    - 국고채금리<sup>11)</sup>(2016년 → 2017년, %): (1월) 1.62 → 1.64, (9월) 1.31 → 1.79
    - 회사채금리(2016년 → 2017년, %): (1월) 2.09 → 2.10, (9월) 1.70 → 2.33

[그림 3] 월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법인세

- 2017년 법인세는 58.1조원으로, 2016년 법인 실적의 뚜렷한 개선에 따라 법인세수는 높은 증가율(11.4%)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의 높은 증가율(15.7%)에 따른 기저효과, 일부 금융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11) 국고채 금리는 3년 만기 기준이며, 회사채금리는 장외 3년, AA- 등급 기준임

- 전년대비 5.9조원(11.4%) 증가, 추경예산(57.3조원)대비 0.8조원(1.4%) 증가 예상
-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2017년 3~4월에 신고·납부함에 따라, 2017년 8월까지의 법인세수가 전년동기대비 6.0조원(15.0%) 증가

□ 2016년 원자재값 하락과 주택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세전이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증가세로 전환(2015년 -3.0% → 2016년 0.8%)되고,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세전이익률이 각각 6.2%에서 7.4%로, 5.6%에서 6.7%로 상승하였고, 외감법인 실적의 추이도 비슷
  - 외감법인 매출액은 2015년 -2.4%에서 2016년 1.1%의 증가세로 전환, 영업이익률 및 세전이익률은 각각 5.2%에서 6.1%로, 5.4%에서 5.8%로 증가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세전순이익률이 상승
  - 대기업('15→'16년, %): (영업이익률) 5.2 → 6.1 (세전순이익률) 5.6 → 5.9
  - 중소기업('15→'16년, %): (영업이익률) 5.3 → 6.0 (세전순이익률) 4.5 → 5.4
- (산업별) 원자재값 하락과 주택경기 호조로 석유화학, 건설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상승
  - 유가 하락<sup>12)</sup>, 건설 경기 호조로 석유화학, 건설업,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금속제품산업 이익도 호조세
  - 하반기 삼성전자의 플래그쉽 상품인 갤럭시 노트7의 불량문제 등으로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계·전기전자제조업의 이익률이 소폭 하락,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등으로 운수업 등의 이익률이 감소
  - 전체 세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업종의 실적 악화가 법인세수 증대를 제약.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특수은행이 큰 폭의 적자(-4.0조원)를 기록함에 따라 은행업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0% 감소

12) 두바이유(\$/bbl): 2014년 96.7\$, 2015년 50.8\$, 2016년 41.3\$, 2017년 1~7월 평균 50.9\$



[표 11] 기업 경영 실적

(단위: 전년동기대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대상 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12	2013	2014	2015	2015 속보	2016 속보	2014	2015	2016
매출액증가율	5.1	2.1	1.3	0.3	-2.4	1.1	-0.4	-3.0	0.8
영업이익증가율	-4.0	2.6	-2.7	18.4	n.a.	n.a.	-12.7	14.2	15.0
순이익증가율	-1.5	-20.4	27.4	36.2	n.a.	n.a.	-7.5	3.1	18.5
영업이익률	4.1	4.1	4.0	4.7	5.2	6.1	5.3	6.2	7.4
세전이익률	3.4	2.9	3.3	4.4	5.4	5.8	4.9	5.6	6.7
순이익률	2.5	2.0	2.5	3.3	4.1	4.4	3.7	3.9	4.9

- 주: 1. 기업경영분석대상법인은 전국 국세청 법인세 신고 기업 중 금융업, 결산일이 1~5월인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한 것임. 2015~2016년 속보 자료는 국내 영리법인기업의 경영성적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기업(외감법인)을 전수 조사한 것임
2. 유가증권시장법인의 실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매출액 증가율 등 성장성 지표는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수치를 이용하였음. 이는 매 해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당해 연도 발표한 매출액을 이용한 증가율 산출과는 차이가 존재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표 12] 외감법인의 수익성 지표

(단위: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비금융업	4.3	5.2	6.1	3.9	5.4	5.8
대기업	4.2	5.2	6.1	4.0	5.6	5.9
중소기업	4.6	5.3	6.0	3.7	4.5	5.4
제조업	4.4	5.5	6.3	4.6	5.4	6.8
(석유화학)	(n.a)	(6.7)	(9.3)	(n.a)	(5.3)	(7.3)
(금속제품)	(n.a)	(5.5)	(6.4)	(n.a)	(2.7)	(4.3)
(기계전기전자)	(n.a)	(6.7)	(6.0)	(n.a)	(5.2)	(4.8)
비제조업	4.2	4.9	5.7	2.9	5.4	4.7
(건설)	(n.a)	(2.4)	(4.8)	(n.a)	(1.1)	(2.7)
(운수업)	(n.a)	(5.8)	(5.2)	(n.a)	(0.6)	(-0.2)

- 주: 1. 2014년 및 2015년은 각각 2015년과 2016년말 현재 외감기업의 전기 실적이며 20,888개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14년의 경우 전수조사를 대상으로 한 위 표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7.5.30.

## 부가가치세

- 2017년 부가가치세는 66.0조원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2조원(6.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경예산(62.6조원)대비로는 3.4조원(5.5%)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함께 수입액 증가 등에 기인하여 1~8월 중 부가가치세 실적은 전년동월대비(누적) 3.0조원(6.6%)의 견조한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9~12월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16년의 높은 증가율(14.2%)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증가로 인한 환급액 증가 등으로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둔화된 6.7%로 전망
- 대외거래 회복세로 인한 통관수입 증가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로 인한 환급 증가는 증가폭을 상쇄할 전망
  - (국내분)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관수출의 증가로 인한 환급액 증가로 인해 1~8월 중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1.3조원(-5.6%) 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수입분) 2014년 2분기부터 10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통관수입이 2016년 4분기에 4.1% 증가로 전환된 후, 2017년 1~2분기 21.4%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표 13]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거시변수 실적

(단위: %)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수출(통관,달러기준)	-3.0	-7.3	-9.5	-12.0	-13.7	-6.7	-5.0	1.8	14.7	16.7
수입(통관,달러기준)	-15.6	-15.6	-18.7	-17.8	-16.0	-10.1	-5.1	4.1	24.0	18.8
민간소비(명목)	1.8	2.5	3.6	4.4	3.4	4.3	3.6	2.9	3.6	3.9
VAT(국내분,조원)	1.8	5.0	5.2	5.1	7.2	7.1	6.7	6.1	7.1	6.1
VAT(수입분,조원)	8.5	9.6	9.8	9.3	7.6	8.7	9.2	9.2	9.3	10.5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기획재정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 201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6조원으로 수송 부문 유류 소비량 감소 및 유가 상승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전년대비 0.3조원(1.8%) 증가, 추경예산(15.4조원)대비 0.2조원(1.3%) 증가 예상
  - 원유 가격은 2016년 유가 하락세가 멈추고 점진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
    - － 두바이유(\$/배럴): (‘16. 6)46.3 → (‘16. 12)43.2 → (‘17. 6)46.5 → (‘17. 9)53.7
  - 2017년 1~8월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0.4%, 1.6% 증가

[표 14]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단위: 만배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2016	휘발유	651 (6.3)	604 (1.2)	635 (-1.3)	644 (1.8)	660 (4.8)	621 (5.3)	654 (1.6)	780 (10.8)	5,249 (3.9)
	경유	1,353 (12.2)	1,231 (3.0)	1,391 (3.7)	1,397 (6.2)	1,432 (9.8)	1,330 (7.8)	1,253 (2.7)	1,508 (10.4)	10,894 (7.0)
2017	휘발유	606 (-7.0)	588 (-2.6)	657 (3.3)	632 (-1.8)	696 (5.3)	668 (7.4)	712 (8.9)	712 (-8.6)	5,270 (0.4)
	경유	1,232 (-8.9)	1,234 (0.3)	1,435 (3.2)	1,378 (-1.4)	1,463 (2.2)	1,477 (11.1)	1,469 (17.3)	1,385 (-8.2)	11,073 (1.6)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 관세

- 2017년 관세는 8.6조원으로 통관수입액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0.6조원(7.0%) 증가할 전망
- 추경예산(9.0조원)대비 0.4조원(-4.3%) 하회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4/4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통관수입액 증가세에 기인하여 1~8월 관세수입실적은 전년동기대비 0.4조원(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에도 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
  - 관세의 과세표준인 2017년 원화기준 통관수입액이 전년대비 증가(12.7%)할 것으로 전망되나, FTA 국가로부터의 통관수입액 증가와 FTA 수입활용률

증가 등으로 인해 관세수입 증가율(7.0%)은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가율(12.7%)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

- 2017년 1~8월 중 FTA 국가로부터의 통관수입액이 전년동월대비(누적) 2,136억\$(17.5%) 증가한 가운데, FTA 수입활용율이 지난해에 비해 7.6%p 상승한 중국과의 통관수입액 역시 전년대비 1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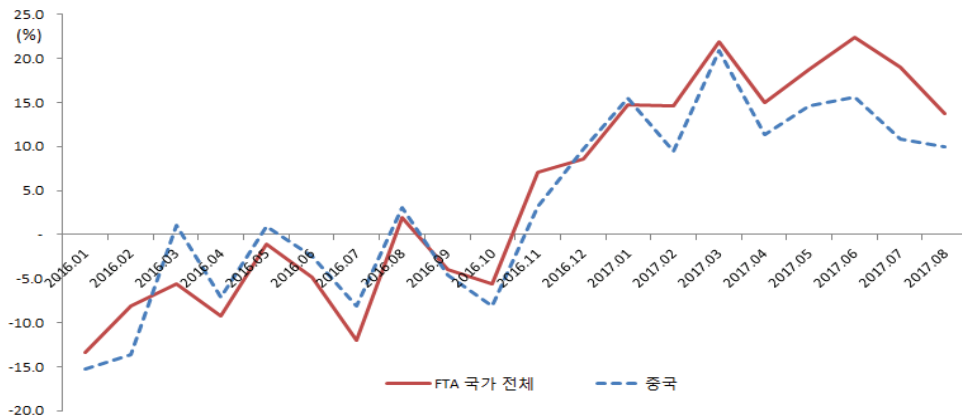
[표 15] FTA 주요국의 수입활용율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상반기
EU	69.8	71.0	74.5
미국	67.7	69.7	69.7
호주	—	74.3	61.9
중국	—	58.1	65.7
뉴질랜드	—	87.3	84.6

자료: 관세청

[그림 4] FTA 협정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액 증감률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증감률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개별소비세

- 2017년 개별소비세는 10.0조원으로,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세 둔화와 담배수요 안정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1.1조원(12.2%) 증가 전망
  - 추경예산(9.0조원)대비 1.0조원(10.6%) 증가 예상
  - 유류분 개별소비세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 효과가 연평균 0.4조원 발생함에 따라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담배 반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6.3억갑으로 예상되며,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2.2조원으로 전망

## 상속·증여세

- 2017년 상속·증여세는 6.6조원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어 전년대비 1.3조원(24.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경예산(6.0조원)대비 0.6조원(10.2%) 증가 예상
  - 상반기 중 부동산 가격 상승세 확대 및 신고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에 따른 부동산 증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월 중 상속·증여세수는 전년(3.3조원) 대비 1.3조원(38.5%) 증가
    -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축소 계획(%): ('17) 7 ('18) 5 ('19) 3
    - － 주택 증여건수 증가율(동(호)수, 누계, %): ('15.8) 6.3 ('16.8) 10.8 ('17.8) 8.5

## (2) 2018년 국세수입

2018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1.7조원(+4.5%) 증가한 272.1조원으로, 예산안(268.2조원)대비 3.9조원(+1.5%) 높을 것으로 전망

### (가) 총괄

- 2018년 국세수입은 272.1조원으로, 전년의 기업실적 호조,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2017년(260.4조원)대비 11.7조원(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의 실적호조에 따른 반락효과와 경상성장률의 소폭 둔화(4.6%→4.4%) 등으로 인해 국세수입 증가율(4.5%)은 2017년 7.4%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
- 세목별로는 전년의 기업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와 명목임금 증가 등에 기인한 소득세가 2017년에 이어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증가추세는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소득세는 75.7조원으로, 근로·종합소득세수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양도소득세의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소득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2017년 6.4% → 2018년 3.9%)
  - 법인세는 63.1조원으로, 2017년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2017년 11.4% → 2018년 8.7%)
  - 부가가치세는 68.7조원으로 통관기준 수입액 증가세가 둔화(15.2% → 5.4%)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2017년 6.7%→2018년 4.0%)
-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68.2조원)대비로는 3.9조원(1.5%) 높을 것으로 전망
  - NABO의 2018년 경상성장률 전망은 4.4%로, 정부 전망 4.5%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나 2018년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7년 국세수입 전망을 정부 예산보다 9.3조원(3.7%) 높게 보고 있는데 주로 기인
    - －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실질/경상, %): (정부)3.0/4.5 (NABO)2.8/4.4
    - － 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 (정부)6.8<sup>13)</sup> (NABO)4.5

13) 2017년 본예산대비 증가율은 10.7%임

- 세목별로는 2018년 세수전망의 베이스인 2017년 전망치가 정부보다 높았던 소득세(+2.7조원)와 부가가치세(+1.3조원) 등이 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전망

[표 16] 2018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7 NABO 전망(A)	2018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안대비 (C-B) 차이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60.4	268.2	272.1	11.7	4.5	3.9
일반회계	253.5	260.9	265.1	11.7	4.6	4.2
내국세	222.6	228.0	233.4	10.8	4.8	5.4
1. 소득세	72.9	73.0	75.7	2.8	3.9	2.7
2. 법인세	58.1	63.1	63.1	5.1	8.7	0.0
3. 상속증여세	6.6	6.2	6.9	0.3	4.0	0.8
4. 부가가치세	66.0	67.3	68.7	2.7	4.0	1.3
5. 개별소비세	10.0	10.1	10.4	0.4	4.0	0.3
6. 증권거래세	4.0	4.0	3.9	-0.1	-2.5	-0.1
7. 인 지 세	0.9	0.9	0.9	-0.0	-5.4	-0.1
8. 과년도수입	4.1	3.4	3.8	-0.3	-6.5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5.6	16.4	15.8	0.2	1.6	-0.6
관 세	8.6	9.4	9.0	0.4	5.1	-0.4
교 육 세	5.2	5.2	5.4	0.1	2.8	0.1
종합부동산세	1.4	1.8	1.5	0.0	2.5	-0.3
특별회계	7.0	7.3	7.0	0.1	1.0	-0.3
주 세	3.3	3.5	3.3	0.1	1.7	-0.2
농 특 세	3.7	3.8	3.7	0.0	0.4	-0.1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나) 세목별 전망

**소득세**

- 2018년 소득세는 75.7조원으로, 근로·종합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8.9%)가 예상되나, 양도소득세의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2017년 -0.6% → 2018년 -16.7%)될 것으로 예상
  - 2017년 NABO 전망대비 2.8조원(3.9%) 증가하고 예산안(73.0조원)대비 2.7조원(3.7%) 높을 것으로 전망
    - 1~8월 소득세 징수 추이 등을 감안해 추정된 2017년 NABO전망치(72.9조원)가 2018년 예산안 73.0조원과 유사함에 따라, NABO의 2018년 소득세는 정부보다 높게 전망

[표 17] 2018년 소득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17 NABO 전망(A)	2018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안대비 (C-B) 차이
				증감액	증감률	
소득세 계	72.9	73.0	75.7	2.8	3.9	2.7
신고분	29.5	27.0	28.8	-0.8	-2.5	1.7
종합소득세	15.9	16.7	17.4	1.5	9.5	0.8
양도소득세	13.6	10.4	11.3	-2.3	-16.7	1.0
원천분	43.4	45.8	46.9	3.6	8.2	1.1
이자소득세	2.1	2.2	2.1	0.1	4.0	0.0
배당소득세	2.3	2.2	2.4	0.1	5.7	0.2
사업소득세	2.6	2.7	2.8	0.2	7.7	0.0
근로소득세	33.7	35.7	36.6	2.9	8.7	0.9
기타소득세	1.5	1.6	1.6	0.1	7.1	0.0
퇴직소득세	1.3	1.5	1.4	0.1	10.6	0.0

-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2.9조원(8.7%) 증가한 36.6조원으로, 이는 명목임금 상승(4.2%) 및 취업자 수 증가(+31.5만명, 1.2%) 등에 기인
- 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1.5조원(9.5%) 증가한 17.4조원으로, 이는 경제성장(경상성장률 4.4%)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실적 개선 및 성실신고 지원에 따른 신고소득 증가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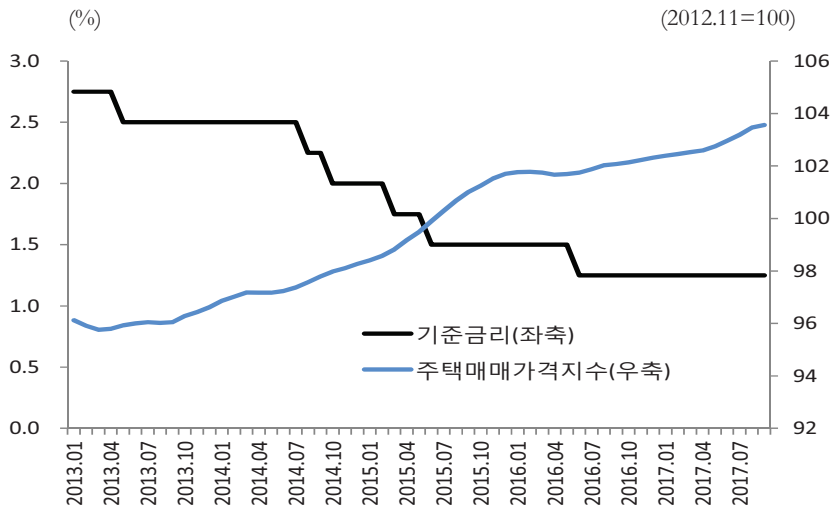


- 이자소득세는 전년대비 0.1조원(4.0%) 증가한 2.1조원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완만한 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동조화 현상에 따른 금리 상승 전망에 기인(3년만기 국고채 기준 2017년 1.8% → 2018년 2.2%)

□ 2018년 중 금리인상 가능성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의 감소세는 확대(-16.7%)될 전망

- 미국 및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경우 2018년 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음
- 기준금리 인하 추이가 유지된 2013년 하반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되었으나, 금리 인상 시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될 가능성

[그림 5] 기준금리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 법인세

- 2018년 법인세는 63.1조원으로, 2017년 법인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인해 2016~2017년의 호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17년 NABO 전망대비 5.1조원(8.7%) 증가하고, 예산안(63.1조원)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2016~2017년의 높은 증가율(각각 15.7%, 11.4%)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법인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법인세율 인상 등의 제도적 요인도 있어 여전히 높은 증가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전세계적인 반도체시장 호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내수와 수출 증가 등으로 세수 비중이 높은 전자, 석유 화학의 이익 호조세가 뚜렷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수 증가 전망

- (규모별) 2017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 이상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4%의 큰 폭 증가
  - 외감법인으로 확대할 경우, 2017년 2/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에서 8.0%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 및 세전이익률도 각각 6.9%에서 7.2%로, 6.8%에서 7.1%로 확대
  - 다만, 상장법인(연결법인)의 2017년 상반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19%, 24% 증가하였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각각 7%, 11%로 증가율이 하락
- (비금융업) 상대적으로 세수 비중이 높은 전자, 석유화학의 이익 전망이 밝고, 운송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중국 사드 보복 등에 따라 매출이 부진하나 해당 업종의 법인세수 비중이 낮아 세수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2017년 상반기 업종별 이익률은 D램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계, 전기전자가 상승하였고,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금속제품도 호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면서 석유 화학업종도 호조세
  -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수출 부진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자동차가 포함된 운송장비 업종 및 음식숙박업의 매출액 및 이익률 감소, 연료가스 값 급등으로 전기가스업의 매출액 및 이익률 감소
- (금융업) 2016년 중 특수은행의 적자를 가져왔던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등 금융업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금융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상반기 8.5조원에서 2017년 상반기 15.5조원으로, 증가율이 크게 증가(-22.1% → 82.1%)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율 인상, 2015~2016년 세법 개정 중 비과세 감면 정비 등에 따라 세수 증대 효과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며, 중간예납에 이를 반영할 경우 약 0.2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 발생
  - 2015~2016년 세법개정 중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기업환류세제 보완 등으로 약 0.3조원의 세수 증가 기대

[표 18] 외감법인의 수익성 지표

(단위: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2016			2017			2016			2017		
		2/4	3/4	4/4	1/4	2/4		2/4	3/4	4/4	1/4	2/4
전산업	6.1	6.9	5.7	5.2	7.0	7.2	5.8	6.8	5.0	4.2	7.8	7.1
제조업	6.3	7.4	5.9	6.3	8.5	8.4	6.8	7.9	5.5	6.9	9.5	8.9
비제조업	5.7	6.2	5.5	3.6	4.9	5.4	4.7	5.2	4.3	0.7	5.5	4.7
대기업	6.1	6.8	5.6	5.6	7.2	7.2	5.9	6.8	4.9	4.6	8.3	7.2
중소기업	6.0	7.3	6.0	3.1	6.2	7.1	5.4	6.7	5.2	2.6	5.5	6.7

주: 1. 2016년 연간비율은 외감기업 전수집계 결과(2017.5월 공표)

[표 19] 20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대비 증감 현황: 유가증권 상장법인 기준

- 흑자증가 : 비금속광물(773.26%), 전기전자(173.03%), 기계(104.49%), 유통업(97.45%), 의료정밀(58.24%), 철강금속(37.76%), 서비스업(32.53%) 통산업(2.48%)
- 흑자감소 : 운수창고업(-72.28%), 전기가스업(-62.04%), 운수장비(-36.64%), 음식료품(-35.75%), 섬유 의복(-21.99%), 종이목재(-10.95%), 화학(-10.50%), 건설업(-7.75%), 의약품(-4.76%)

[표 20] 업태별 법인세 비중: 2015년 신고 기준

(단위: %)

농·임·어업	광업	제조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매	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서비스	보건
0.2	0.3	42.0	2.7	7.6	9.2	3.5	0.7	2.9	20.0	2.4	8.2	0.2

## 부가가치세

- 2018년 부가가치세는 68.7조원으로, 명목민간소비 증가와 통관기준 수입액의 증가세 등으로 인해 2017년대비 2.7조원(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명목민간소비는 소폭 증가(4.0%→4.4%)할 것으로 예상되나, 통관기준 수입액 증가율이 둔화(15.2%→5.4%)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의 증가세(6.7%)에서 둔화된 4.0% 증가할 전망
  - 예산안(67.4조원)대비로는 1.3조원(1.9%)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 민간소비 증가율, 통관수입액 등을 NABO가 정부보다 낮게 전망함에 따라 예산대비 초과 징수액 규모는 2017년 3.4조원에서 축소

[표 21]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거시변수 실적 및 전망

(단위: %)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17 <sup>e</sup>	'18 <sup>e</sup>
수출(통관,달러기준)	-3.0	-7.3	-9.5	-12.0	-13.7	-6.7	-5.0	1.8	12.9	3.1
수입(통관,달러기준)	-15.6	-15.6	-18.7	-17.8	-16.0	-10.1	-5.1	4.1	15.2	5.4
민간소비(명목)	1.8	2.5	3.6	4.4	3.4	4.3	3.6	2.9	4.0	4.4

주: 1. 2017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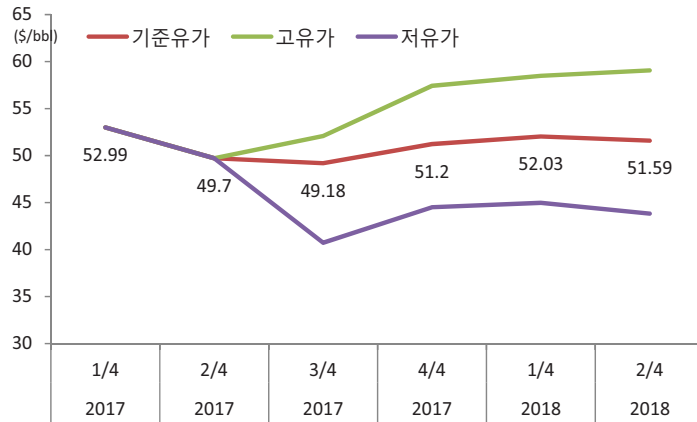
## 교통·에너지·환경세

-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8조원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 수송용 유류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가율은 전년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
  - 2017년 NABO 전망대비 0.2조원(1.6%) 증가하고, 예산안(16.4조원)대비 0.6조원(-3.5%) 낮을 것으로 전망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기준선 시나리오에 따라 2017년 4분기 배럴당 \$51.2에서 2018년 1분기 \$52.03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sup>14)</sup>

1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 하반기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 전망」, 2017.7.

[그림 6] 시나리오별 원유가격 전망

(단위: 두바이유, \$/배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관세

- 2018년 관세는 9.0조원으로, 통관수입액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
  - 2017년 NABO 전망대비 0.4조원(5.1%) 증가하고, 예산안(9.4조원)대비 0.4조원(-4.0%) 낮을 것으로 전망
  - 관세의 과세표준인 통관수입액(달러화 기준)의 증가율이 2017년 15.4%에서 2018년은 5.4%로 10.0%p 낮을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
  - 다만, FTA 연차별 관세 인하 스케줄과 수입활용률 증가는 관세수입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개별소비세

- 2018년 개별소비세는 10.4조원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등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 둔화 및 담배 수요 소폭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 2017년 NABO 전망대비 0.4조원(4.0%) 증가하고, 예산안(10.1조원)대비 0.3조원(2.0%) 상회할 전망

- 유류분 개별소비세는 발전용 유연탄분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할 전망
-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2016년 12월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표기 이후 소비량 감소 및 흡연율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0.1조원 감소할 전망

[표 2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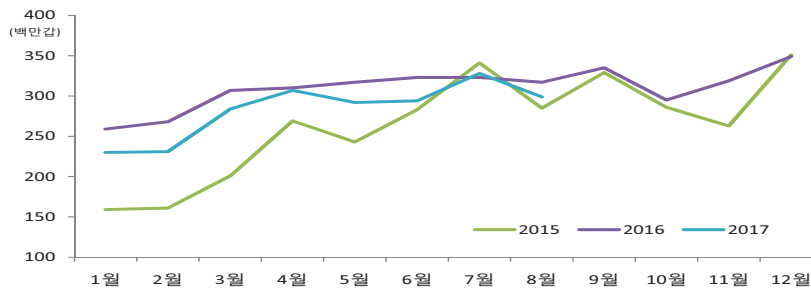
(단위: 원/kg)

순발열량(kcal/kg)	2014(1월)	2015(7월)	2016(2월)	2017(4월)	2018(예정)
5,000kcal 미만	17	22	21	27	33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19	24	24	30	36
5,500kcal 이상			27	33	39

## [BOX 2] 담배 반출량 추이

- (반출량 추이) 2015년 담배갑 인상 기저효과로 2016년 반출량은 전년 대비 상승. 2017년은 경고그림 표기 등 요인으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임
- 2017년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표기(2016년 12월 23일 시행) 등 금연정책 결과, 담배 반출량은 2017년 1~8월 동안 22.7억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
  - 국민 흡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흡연율: ('98) 35.1%, ('10) 27.5%, ('13) 24.1%, ('15) 22.6%

[그림] 담배 반출량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다. 국세외수입

### (1) 2017년 국세외수입

2017년 국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9조원(+6.2%) 증가한 169.0조원으로, 추경예산을 3.0조원(-1.8%) 하회할 전망

#### (가) 총괄

- 2017년 국세외수입은 169.0조원으로, 2016년(159.1조원)대비 9.9조원(6.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기여금수입이 전년대비 4.2조원(7.3%) 증가하고,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에 힘입어 재산수입이 전년대비 1.8조원(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
  -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요율 인상(2016년 8%→2017년 8.25%) 등에 따라 경상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7조원(5.0%) 증가
  - 우정사업수입의 증가에 따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전년대비 0.6조원(10.2%) 증가하고, 복권판매수입의 증가로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역시 전년대비 0.6조원(6.9%) 증가
- 추경예산(172.0조원)대비 3.0조원(-1.8%) 낮을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가 정부계획에 미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여금수입이 추경예산(62.0조원)대비 0.9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저금리 지속으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도 추경예산대비 0.7조원(-10.0%)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융자원금회수 실적이 예산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융자원금회수도 추경예산대비 0.3조원(-1.0%) 낮을 것으로 전망

[표 23] 2017년 국세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6 실적 (A)	2017					
		예산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외수입	159.1	172.0	169.0	9.9	6.2	-3.0	-1.8
사회보장기여금	56.9	62.0	61.1	4.2	7.3	-0.9	-1.5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5.8	7.1	6.4	0.6	10.2	-0.7	-10.0
재산수입	24.4	27.0	26.2	1.8	7.4	-0.8	-2.9
경상이전수입	33.6	35.3	35.3	1.7	5.0	-0.0	-0.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1	8.7	8.7	0.6	6.9	-0.0	-0.4
관유물매각대	3.4	3.8	3.6	0.2	4.7	-0.2	-6.3
융자원금회수	26.4	27.7	27.4	1.0	3.8	-0.3	-1.0
기타	0.5	0.4	0.4	-0.1	-17.9	0.0	2.6

주: 1. 2017년은 국회확정 예산 기준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 기타는 수입대체경비수입과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의 합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9조원(9.4%) 증가한 10.3조원으로 전망

-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이 전년대비 0.4조원 증가한 2.3조원이 수납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산수입은 0.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무부의 벌금 및 과료, 경찰청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의 수납물 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은 0.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조원(7.4%) 증가한 15.3조원으로 전망

-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영업수입의 연례적 수납물 저조 현상을 현실화함에 따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0.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과거 출연금 0.3조원과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0.1조원 등의 반납수입으로 인해 경상이전수입이 0.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7.9조원(5.8%) 증가한 143.5조원으로 전망
  - 가입자수 및 임금증가 등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4.2조원(7.3%) 증가할 전망
  - 연금의 적립금 증가에 따른 운용수익 증가로 인하여 재산수입은 1.3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 기여금 요율 증가(2016년 8.0%→2017년 8.25%)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증가 등으로 경상이전수입이 0.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회계별로는 추경예산안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 우정사업본부 금융영업수익의 부족수납 등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추경예산(16.1조원)대비 0.8조원(-5.2%) 낮을 것으로 전망
  -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기여금수입 및 운용수입의 예산대비 부족 등으로 추경예산(145.6조원)대비 2.1조원(-1.5%) 하회할 전망

[표 24] 2017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6 실적 (A)	2017					
		예산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외수입(I+II)	159.1	172.0	169.0	9.9	6.2	-3.0	-1.8
세외수입(I)	23.5	26.4	25.5	1.9	8.2	-0.9	-3.2
일반회계	9.4	10.3	10.3	0.9	9.4	-0.0	-0.1
특별회계	14.2	16.1	15.3	1.1	7.4	-0.8	-5.2
기금수입(II)	135.6	145.6	143.5	7.9	5.8	-2.1	-1.5
- 사회보장기여금	56.9	62.0	61.1	4.2	7.3	-0.9	-1.5

주: 2017년은 국회확정 예산 기준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세목별 전망

**사회보장기여금**

- 2017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61.1조원으로, 2016년(56.9조원)대비 4.2조원(7.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수 증가와 기준소득월액 향상에 따른 국민연금의 기여금수입이 2.8조원(7.3%)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
    - － 가입자수 및 임금상승 등으로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각각 0.4조원, 0.6조원, 0.3조원 증가
- 추경예산(62.0조원)대비로는 0.9조원(−1.5%) 낮을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수가 정부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0.5조원(−1.3%)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산재보험 역시 적용근로자수가 정부전망을 밑돌아 추경예산대비 0.3조원(−4.4%) 하회할 것으로 전망

[표 25] 2017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6 실적 (A)	2017					
		예산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사회보장기여금	56.9	62.0	61.1	4.2	7.3	−0.9	−1.5
국민연금	39.0	42.4	41.9	2.8	7.3	−0.5	−1.3
사학연금	2.5	2.9	2.9	0.4	16.1	0.0	0.9
고용보험	9.0	9.8	9.6	0.6	6.6	−0.1	−1.2
산재보험	6.3	6.9	6.6	0.3	5.4	−0.3	−4.4

주: 2017년은 국회확정 예산 기준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민연금

- 2017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은 20.5조원으로서, 사업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지역가입자 소폭 감소 및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2017년 상반기 기여금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조원 초과 징수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 사업장 가입자는 2016년도 말 1,319만명에서 1,332만명으로 13만명 증가
    - － 지역가입자는 2016년도 말 389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만명 감소
    - － 임의(계속)가입자는 2016년도 말 58만명에서 64만명으로 6만명 증가
- 2017년 기여금 수입 전망액은 41.9조원으로서, 가입자 증가 및 소득수준 개선으로 2016년(39.0조원)에 비해 2.8조원(7.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장 가입자는 2017년도 말 1,344만명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5만명 증가하고, 임의(계속)가입자는 72만명으로 14만명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는 387만명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1.7~2.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
- 2017년 정부 계획(42.4조원)에 비해 0.5조원(-1.3%)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2013년 이후 계획 대비 수납액의 전망 오차는 4.7%로 상당한 폭을 보였지만, 정부가 2017년 예산편성시 기여금 증가액을 예년에 비해 둔화시킴에 따라 NABO의 2017년 기여금 수입과의 전망차이는 1.3%로 감소 예상
  - 오차금액을 가입자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수입은 계획에 비해 1조 1,835억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정부 계획대비 각각 2,830억원, 2,949억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

[표 26] 국민연금 사회보장 기여금수입 전망 오차

(단위: 억원, %)

	계획(A)	수납액(B)	수납률	오차	오차율
2013	328,444	319,067	97.1%	-9,377	2.9%
2014	359,001	340,775	94.9%	-18,226	5.1%
2015	385,370	364,261	94.5%	-21,109	5.5%
2016	411,819	390,359	94.8%	-21,460	5.2%
2017	424,187	418,638 <sup>1)</sup>	98.7%	-5,549	1.3%

주: 1) 2017년 수납액은 NABO의 전망치 적용

## 사학연금

- 2017년 상반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기여금 수입은 1.6조원으로서, 2016년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면서 기여금 개인부담금이 증가하고, 국립대병원 직원 등이 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증가 추세 지속<sup>15)16)</sup>
  - 2017년 상반기 기여금 수입은 2016년 상반기에 비해 3,364억원 추가 징수되면서 매년 징수액 증가 추세 이어감
- 2017년 기여금 수입 전망액은 2.9조원으로서, 가입자 및 기준소득월액 증가로 2016년(2.5조원)대비 0.4조원(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 기여금 수입 중 개인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기여금 부담률이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0%에서 2017년 8.25%로 0.25%p 증가
    - 기관부담금(법인, 국가)도 동일한 부담률 적용함에 따라 기여금수입 증가에 영향
  -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 등의 가입자 편입 영향(약 3만명 증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여금 수입 급증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700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으나 2016년은 1만분의 800으로 증가함. 개인부담금은 2020년까지 매년 1만분의 25씩 추가되어 2020년에는 1만분의 900이 됨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가 개정되면서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임상교수요원, 직원, 국립대학병원 등의 임상교수요원, 직원 등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적용하게 됨

- 사학연금의 가입자는 크게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6년 말 교원은 174,454명, 직원은 138,759명으로 2015년도에 비해 30,689명 증가
- 2017년 계획(2.9조원)대비 251억원(0.9%)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도 말 직원수가 이미 정부가 2017년 계획에 반영한 직원 수(135,028명)를 추월함에 따라 전망액이 계획에 비해 상회

## 고용보험

- 2017년 1~7월 중 고용보험 기여금 수입은 적용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7%(0.3조원)의 증가율을 기록
  - 2017년 2/4분기 수입(2.7조원)은 1/4분기(2.5조원) 대비 7.4% 증가
- 2017년 기여금 수입 전망액은 9.6조원으로, 2016년(9.0조원)대비 0.6조원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이 전년(2.4%)에 비해 0.3%p 높은 2.7%로 전망됨에 따라 2017년 기여금 증가율은 2016년(5.4%)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추경예산(9.8조원)대비로는 0.1조원(-1.2%) 낮을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적용근로자 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이를 고려하여 평균보험료율을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
    -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수 비중은 2014년 63.9%에서 2016년 64.8%로 점차 커지고, 연평균증가율도 2.9%로 150명 이상 사업장 피보험자 수 증가율(1.8%)을 상회
    - 보수총액 대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50명 미만 사업장 0.25%, 150명 이상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1,000명 사업장 0.65%, 1,000명 이상 사업장 0.85%를 부담

## 산재보험

- 2017년 1~7월 중 산재보험 기여금 수입은 적용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2%(0.2조원)의 증가율을 기록
- 2017년 기여금 수입 전망액은 6.6조원으로, 2016년(6.3조원)대비 0.3조원(5.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용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6% 증가하고 보수총액도 전년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여금 수입 증가 예상
- 추경예산(6.9조원)대비로는 0.3조원(-4.4%) 낮을 것으로 전망
  -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다는 점과 2017년 1~7월 기여금 수입 실적을 고려
    -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에 있어 정부 전망치(2.9%)보다 낮은 2.6% 적용
    - 정부의 2017년 예산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수준이나, 2017년 1~7월 기여금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 증가에 불과하고 하반기 기여금 수입이 급증할 특이요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낮은 시장금리, 미곡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해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2014~2016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은 수익률 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은 2013년 7.0조원에 달하였으나, 양곡사업 및 우정사업 수입이 모두 감소하여 2014~2016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였음
    - 양곡사업수입은 곡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해 수입이 지속 감소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우정사업수입은 2016년까지 저금리·주식시장 정체 등으로 인해 운용수익률이 저조
  - 2017년의 경우, 양곡사업수입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나 금리인상,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개선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수증가 전망
    - 우정사업수입의 경우 금융영업수익이 전년대비 4,909억원 증가하여 전체 기업특별회계영업수익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표 27]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세부항목: 2011~2017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적					전망
양곡사업수입	6,652	8,532	5,398	5,035	4,692	4,373
우정사업수입	50,872	54,683	49,430	49,148	45,741	51,359
조달사업수입	1,551	1,586	1,656	1,745	1,654	1,889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4,994	5,275	5,468	5,744	5,997	6,305
합 계	64,068	70,076	61,952	61,672	58,083	63,926
(전년대비 증가율)	(3.5%)	(9.4%)	(-11.6%)	(-0.5%)	(-5.8%)	(10.1%)

주: 1. 2017년 1/4분기 실적기준

자료: 디브레인(db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BOX 3]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입의 연례적 세입결손 문제

- 정부는 우정사업수입 금융영업수익률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2013~2016년 동안 세수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의 경우 결손액이 1.3조원에 달함
  - 우체국예금을 기본으로 한 우정사업 자산운용액은 2012년 60.3조원에서 2017년 66.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산운용 수익률은 2012년 5.10%에서 2016년 2.71%로 하락
  - 정부는 금리하락, 주식시장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매년 희망적으로 전망하여, 2013~2016년 4년 동안 세입결손이 발생
  - 특히 2014~2016년의 세입결손액은 예산액 대비 28.9~42.3% 수준인 0.9 ~ 1.3조원에 육박

[표] 우정산업본부 금융영업수익 관련 현황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산운용액	602,920	617,882	607,955	625,508	637,098	663,012 <sup>1)</sup>
수익률	5.10	3.93	3.82	3.32	2.71	3.24 <sup>1)</sup>
예산(A)	22,142	28,072	29,461	30,834	30,261	26,955
결산(B)	24,439	27,580	20,961	21,518	17,473	
차이(C=B-A)	2,298	-492	-8,501	-9,316	-12,788	
오차율(C/A)	10.4%	-1.8%	-28.9%	-30.2%	-42.3%	

주: 1. 2017년 1/4분기 실적기준

자료: 디브레인(dbbrain) 우정산업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산수입

- 2017년 재산수입은 26.2조원으로 추경예산(27.0조원)대비 0.8조원(-2.9%)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이자수입 등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
  - 정부출자수입은 추경예산대비 0.1조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7월 말 기준 36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수납된 금액(7,929억원)이 정부의 2017년 추경예산 수치인 7,228억원을 초과한 점 등을 반영
  - 이자수입 등 기타 재산수입은 추경예산대비 0.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기금 전년 결산시 징수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5%였던 점을 고려하여 추정

## 경상이전수입

- 경상이전수입은 2012~2016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의 경우 2016년(33.6조원)대비 1.7조원 증가한 35.3조원으로 전망
  - 경상이전수입은 매년 5% 이상 증가
    - 2015년 6월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후 기존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여금 납입액 증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해 연금수입 크게 증가
  - 2017년 경상이전수입은 법정전출금 등 기타항목 18.5조원(54.1%), 연금수입 12.4조원(35.1%), 벌금·몰수금·과태료 등 3.3조원(9.4%) 등 총 35.3조원 전망
  - 연금수입은 2015년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인상 후 수입액이 증가 추세
    - 증가율(%): ('13) 7.9, ('14) 13.0, ('15) 10.2, ('16) 3.3, ('17 전망) 9.6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정전출금이 2011~2016년 동안 7.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부담금 규모가 정제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부담금 규모가 큰 상위 30개 항목의 2011~2016년 징수실적을 기반으로 개별 항목의 추세를 반영하여 법정전출금의 수입 규모를 전망



[표 28] 경상이전수입 세부항목: 2012~2017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적					전망
연금수입	81,336	87,759	99,149	109,287	112,889	123,744
벌금·몰수금·과태료	31,003	28,601	32,511	29,397	30,038	33,234
변상금·위약금	1,096	1,445	809	1,382	1,881	1,414
가산금	6,113	7,411	8,263	8,816	9,450	9,800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76	132,582	137,513	171,548	181,512	184,753
합 계	245,525	257,797	278,245	320,431	335,771	352,945
(전년대비 증가율)	(5.2%)	(5.0%)	(7.9%)	(15.2%)	(4.8%)	(5.1%)

주: 1. 2012~2016년은 예산, 2016년 실적, 2017년 NABO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디브레인(db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무원연금

- 2017년 상반기 공무원연금 기여금수입 실적은 5.8조원으로, 연금기여금 부담률 인상,<sup>17)</sup> 공무원 보수 인상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7조원 증가
- 2017년 기여금 수입 전망액은 11.8조원으로, 연금기여금 부담률 인상, 가입자 및 기준소득월액 증가로 전년대비 1.1조원(9.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6년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어 연금기여금 부담률이 기준소득월액의 8.0%(2016년)에서 8.25%(2017년)로 0.25%p 증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부담률 적용하여 납부함에 따라 기여금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지방직 공무원의 퇴직인원 감소 및 퇴직수당부담금 미납(261억원) 등으로 2016년 자치단체연금부담금 징수액이 계획에 미달함에 따라 2016년 기여금 수입 징수액이 낮아져 2017년 기여금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짐
    - － 2016년 퇴직인원 계획은 38,461명이었으나 실적은 35,209명

17)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700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으나 2016년은 1만분의 800으로 증가함. 개인부담금은 2020년까지 매년 1만분의 25씩 추가되어 2020년에는 1만분의 900이 됨

- 추경예산(11.8조원)을 소폭 하회할(-0.03%) 것으로 전망
  - 2017년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예산에 비해 실적은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
    - 공무원 가입자 수는 안정적인 추세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최근 3~3.5%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 등 정부와의 예측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망치와 예산이 근접

## 군인연금

- 2017년 7월까지 군인연금 기여금수입은 0.3조원으로, 기준소득월액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sup>18)</sup>
  - 공무원연금은 재정안정을 위해 기여금 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군인연금은 2013년부터 공무원연금과 다른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과 차별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여금 부담률도 여전히 7% 유지
- 2017년 기여금 수입 전망액은 0.6조원으로, 기준소득월액 등 보수 처우 개선을 증가로 전년대비 311억원(5.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군인연금의 기여금 수입은 연금기여금으로 구성되며, 이를 납부하는 군인은 매년 일정 수준 유지되므로 군인 보수수준 증가가 주요 요인
- 추경예산(0.6조원)대비 80억원(1.4%)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
  - 2017년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예산에 비해 실적이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

18)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700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으나 2016년은 1만분의 800으로 증가함. 개인부담금은 2020년까지 매년 1만분의 25씩 추가되어 2020년에는 1만분의 900이 됨

## (2) 2018년 국세외수입

2018년 국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5조원(+3.8%) 증가한 175.5조원으로,  
예산안대비 3.4조원(-2.0%) 낮을 것으로 전망

### (가) 총괄

- 2018년 국세외수입은 175.5조원으로, 2017년(169.0조원)대비 6.5조원(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가입자수 확대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상향조정 등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보장기여금의 6.6조원(10.8%)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0.7조원으로, 2017년(10.3조원)대비 0.5조원(4.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법무부의 벌금 및 과료, 경찰청 과태료 등의 수납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경상이전수입이 2017년 전망치 5.9조원보다 0.2조원 증가한 6.1조원으로 전망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5.6조원으로, 2017년(15.3조원)대비 0.3조원(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수입과 금융영업수입의 실적제고 등으로 인하여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2017년 전망치 6.4조원보다 0.3조원 증가한 6.7조원으로 예상
- 기금수입은 149.2조원으로 2017년(143.5조원)대비 5.7조원(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명목임금 상승 및 가입자수 증가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상향조정 등에 기인
- 2018년 국세외수입은 정부 예산안(178.9조원)대비 3.4조원(-2.0%) 낮을 것으로 전망
  - NABO 전망과 국세외수입 예산안과의 차이는 대부분 가입자수의 전망차이가 기인한 사회보장기여금수입(-1.6조원, -2.4%)에서 발생

[표 29] 2018년 국세외수입 전망: 회계별

(단위: 조원, %)

	2017	2018					
	NABO 전망 (A)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대비 C-A		예산안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외수입(I+II)	169.0	178.9	175.5	6.5	3.8	-3.4	-2.0
세외수입(I)	25.5	26.7	26.3	0.8	3.0	-0.4	-1.4
일반회계	10.3	10.9	10.7	0.5	4.5	-0.2	-1.3
특별회계	15.3	15.8	15.6	0.3	2.0	-0.2	-1.4
기금수입(II)	143.5	152.2	149.2	5.7	4.0	-3.1	-2.1
- 사회보장기여금	61.1	69.3	67.7	6.6	10.8	-1.6	-2.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세목별 전망

##### 사회보장기여금

□ 2018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67.7조원으로, 2017년(61.1조원)대비 6.6조원(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취업자수 증가와 임금증가 등으로 국민연금 기여금수입이 2.8조원(6.8%) 증가함과 동시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향조정에 따라 보험료수입이 2.9조원(29.6%) 증가하는 것에 주로 기인

[표 30] 2018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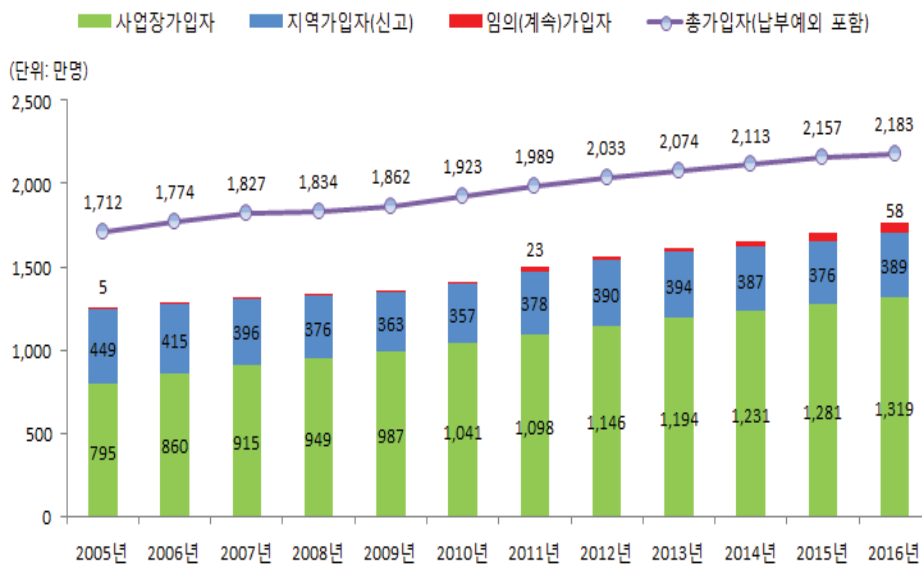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7	2018					
	NABO 전망 (A)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대비 C-A		예산안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사회보장기여금	61.1	69.3	67.7	6.6	10.8	-1.6	-2.4
국민연금	41.9	46.4	44.7	2.8	6.8	-1.7	-3.6
사학연금	2.9	3.1	3.1	0.2	6.3	0.0	0.5
고용보험	9.6	12.4	12.5	2.9	29.6	0.1	0.7
산재보험	6.6	7.3	7.4	0.7	11.0	0.1	0.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민연금) 2018년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은 44.7조원으로, 사업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증가, 지역가입자 소폭 감소 및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향상으로 2017년(41.9조원)에 비해 2.8조(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의 가입자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반영되면서 사업장 가입자 증가 전망
    - － 2018년부터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정책 시행 예정
    - － 사업장 가입자는 2018년도 말 1,391만명으로 2017년도에 비해 4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17년의 25만명 증가에 비해 높은 수준
    - －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속적인 사업장가입자 전환 추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2만명이 감소한 385만명으로 전망
  - 사업장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증가율 2.8%에 비해 0.4%p 높아진 3.2%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전망
    - － 다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제에 따라 평균소득이 명목임금상승률보다 낮은(2012~2016년 평균 76.4%) 증가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목임금상승률 상승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됨

[그림 7]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사학연금) 2018년 사학연금 기여금 수입은 3.1조원으로, 교직원수 증가 및 기준소득월액의 향상, 기여금 부담률 인상으로 2017년(2.9조원)에 비해 0.2조원(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 기여금 부담률이 기준소득월액의 8.25%(2017년)에서 8.5%(2018년)로 0.25%p 증가
  - 직원 및 교원의 수는 평균 1~2%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학연금 가입자 유형별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직종 유형에 따라 1.2%~6.4% 증가율을 적용하여 전망
    - － 사학연금 가입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학교 유형별, 사립학교 재단별 처우 수준의 차이 등이 있어 직종별 기준소득월액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전망
- (고용보험) 2018년 고용보험 기여금 수입은 12.5조원으로, 고용보험료율 상향조정 계획 등을 반영하여 2017년(9.6조원)대비 2.9조원(29.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및 모성보호 강화대책에 따른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단가 인상으로 인한 실업급여계정 지출 급증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상향조정 계획
  -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살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2018년 기여금 수입은 전망치(12.5조원)보다 적어질 수 있음
  - 보수총액 전망 시 적용하는 2018년 NABO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3.7%)보다 높은 4.2%를 사용
- (산재보험) 2018년 산재보험 기여금 수입은 7.4조원으로, 2017년(6.6조원)대비 0.7조원(11.0%) 증가할 전망
  - 2018년부터 자가용·도보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상승을 전제로 전망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2018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6.7조원으로,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변동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우정사업 금융영업 수익률이 금융시장 회복 등으로 인해 2017년(6.4조원)보다 0.3조원(5.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부 예산안(6.9조원)대비로는 0.2조원 낮은 수준
  - 약 80%를 차지하는 우정사업수입은 수익률 소폭 증가로 인해 2017년 5.1조원, 2018년 5.5조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여 전체 증가를 주도
    - － 우체국예금 운용수익률: '16년 2.7%, '17년 3.2%(잠정), '18년 3.5%(전망)
  - 기존에 3년 이상 세입결손이 발생한 양곡수입사업 미곡판매수입과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입의 경우 실적을 반영하여 추계
    - － 2014~2016년 부족수납액 합계: 미곡판매수입(5,414억원, 예산대비 -26.5%), 우정사업금융영업수입(3조 605억원, 예산대비 -33.8%)

[표 31] 2018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전망(NABO)

(단위: 억원)

	2017 NABO 전망(A)	2018				
		예산안 (B)	NABO (C)	전년대비(C-A)		예산안 대비 (C-B)
				금액	증가율	
양곡사업수입	4,373	4,522	4,076	- 297	- 6.8%	- 446
우정사업수입	51,359	56,560	54,703	3,344	6.5%	- 1,857
조달사업수입	1,889	1,981	1,975	86	4.5%	- 6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6,305	6,117	6,628	324	5.1%	512
합 계	63,926	69,180	67,383	3,457	5.4%	- 1,797

자료: 기획재정부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산수입

- 2018년 재산수입은 26.1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7.2조원)대비 1.1조원(-4.2%)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정부출자수입은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 확대 추세를 반영하였으나, 이들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전망이 과거실적(2013~2016년)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sup>19)</sup>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 대비 0.1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 등 기타 재산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에 대한 한은 자체 전망치 반영 및 국민연금기금 이자수입액에 대한 회사채(AA-) 수익률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 대비 1.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경상이전수입

- 2018년도 경상이전수입은 36.2조원으로, 2017년(35.3조원)대비 연금수입 9,072억원, 가산금 928억원 등 총 0.9조원(2.7%)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
  - 정부 예산안(36.2조원)보다 553억원 큰 수준
  - 공무원연금 보험료 등 연금수입은 전년대비 7.3% 증액될 것으로 보임
    -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 급증
  - 벌금·몰수금·과태료는 연례적 부족수납 등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전망치를 현실화하였고, 가산금은 과거 5년(2011~2016년)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전망
  -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법정전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점을 반영하되, 최근의 증가율이 정체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대비 3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19) 기획재정부,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8.30.



[표 32] 2018년 경상이전수입 전망(NABO)

(단위: 억원)

	2017 NABO 전망(A)	2018				
		예산안 (B)	NABO (C)	전년대비(C-A)		예산안 대비 (C-B)
				금액	증가율	
연금수입	123,744	132,004	132,816	9,072	7.3%	812
(공무원연금)	117,922	126,047	126,702	8,780	7.4%	655
(군인연금)	5,822	5,957	6,114	292	5.0%	157
벌금·물수금·과태료	33,234	36,393	32,511	0	0.0%	-3,882
변상금·위약금	1,414	1,826	1,512	0	0.0%	-314
가산금	9,800	10,501	11,229	928	9.0%	728
기타경상이전수입	184,877	181,153	184,362	-391	-0.2%	3,209
합 계	352,945	361,877	362,430	9,485	2.7%	553

자료: 기획재정부 디브레인(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무원연금) 2018년 공무원연금 기여금 수입은 12.7조원으로, 공무원 수 증가 및 기준소득월액의 향상, 기여금 부담률 인상으로 2017년에 비해 0.9조원(7.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률이 기준소득월액의 8.25%(2017년)에서 8.5%(2018년)로 0.25%p 증가
  -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18년에도 과거 추세에 따른 증원 규모 반영
  -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수준은 보수상승률 및 호봉 상승 등 반영한 처우 개선율 3.9% 적용하여 기여금 수입 전망
- (군인연금) 2018년 군인연금 기여금 수입은 0.6조원으로, 군인 보수 처우 개선율 증가로 2017년에 비해 0.03조원(5.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군인은 인력계획에 의해 일정 규모를 유지하기 때문에 군인 수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 수준 상승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 증가 예상

#### [BOX 4] 공무원연금 기여금 수입 구조

- 공무원연금 기여금 수입은 연금기여금과 자치단체연금부담금으로 구성
  - 연금기여금은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성격의 금액
    - \*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연금이체금, 공적연금연계반납금, 급여환수금 등으로 구성
  - 자치단체연금부담금은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서,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을 분리함에 따라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정부 재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입금을 수입으로 인식
    - \* 지방정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구성
-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8.25%(2017년) 납부
  -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여금 부담률은 2016년 8%에서 2020년 9%로 매년 0.25%씩 상승
-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자치단체연금부담금은 각 항목별 산출방식에 따라 납부
  - 연금부담금은 지방정부가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직 공무원 보수예산의 8.25%(2017년) 납부
    - \*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기여금에 비해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됨
  - 보전금은 연금급여액 지급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부족금액
  - 퇴직수당부담금은 지방직 공무원 퇴직 시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표] 공무원연금 부담금 총괄표: 2018년 계획안 기준

(단위: 억원)

	국가 (내부거래)	지자체·특례 (기여금 수입)	합 계
연금부담금	20,826	38,420	59,246
보전금	10,024	18,493	28,517
퇴직수당부담금	8,481	17,179	25,661
재해보상부담금	995	516	1,511
합 계	40,327	74,608	114,935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 3. 2018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 가. 총수입

NABO 2018년 총수입 전망은 447.6조원으로 정부 예산안(447.1조원)을 0.5조원(+0.1%) 상회할 전망

- 2018년 NABO 총수입 전망은 447.6조원으로 예산안(447.1조원)에 비해 0.5조원(0.1%) 높은 수준
  - NABO 국세수입 전망은 272.1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68.2조원)보다 3.9조원 (1.5%) 높은 수준
    - － 2018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7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 보다 9.3조원(3.7%) 높게 전망함에 기인
  - NABO 국세외수입 전망은 175.5조원으로 정부 예산안(178.9조원)보다 3.4조 원(−2.0%) 낮으며 주로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전망차이(−1.6조원)에 기인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를 정부는 2018년 1,47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 으나, NABO는 기존의 증가 추세 및 취업자 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1,391만명으로 전망함에 따라 차이 발생

[표 33] 2018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차이(NABO-정부)	
	2018 예산안	증감률 ('17 추경대비)	2018 전망	증감률 ('17 전망대비)	차이	차이율
총수입	447.1	4.5	447.6	4.2	0.5	0.1
국세수입	268.2	6.8	272.1	4.5	3.9	1.5
국세외수입	178.9	4.0	175.5	3.8	−3.4	−2.0
세외수입	26.7	1.0	26.3	6.5	−0.4	−1.4
기금수입	152.2	4.6	149.2	4.0	−3.1	−2.1
-사회보장기여금	69.3	11.7	67.7	10.8	−1.6	−2.4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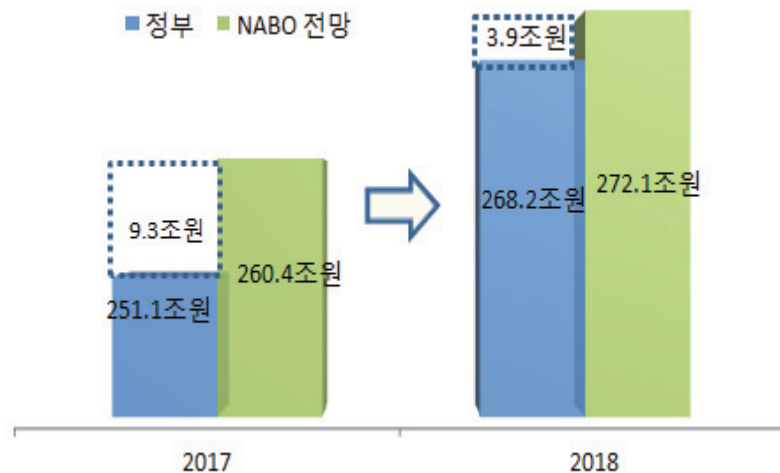
## 나. 국세수입

### (1) 총괄

NABO 2018년 국세수입 전망은 272.1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68.2조원)을 3.9조원(+1.5%) 상회할 전망

-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NABO의 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7.4% → 4.5%)될 것으로 예상되나,
  -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실질/경상, %): (정부) 3.0/4.5 (NABO) 2.8/4.4
  - 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 (정부) 6.8, (NABO) 4.5
- 2018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7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9.3조원(3.7%) 높게 전망함에 따라, 2018년 세입예산안을 3.9조원 상회

[그림 8] NABO 전망과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비교



주: 2017년 정부예산은 추경예산 기준

## (2) 세목별 비교

### 소득세

- 2018년 소득세는 75.7조원으로 예산안(73.0조원)대비 2.7조원(3.7%) 높을 것으로 전망
  - 2017년 세수의 기저효과로 인해 예산안과 차이 발생
    - － 1~8월 세입실적을 반영한 NABO의 2017년 소득세수 전망 72.9조원은 정부의 2018년 예산안(73.0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2018년 세입을 전망함에 따라 예산안과의 차이가 증가
  - 소득세의 예산안 증가율은 4.9%, NABO는 3.9%로 전망하여 유사한 모습

### 법인세

- 2018년 법인세는 63.1조원으로 예산안(63.1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2018년 법인세 증가율(8.7%)은 예산안(10.2%)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기인
    - － 2017년 법인세수를 추경예산보다 0.1조원(1.4%) 높게 전망
    - － 2016~2017년의 높은 증가율(각각 15.7%, 11.4%)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 상장법인(연결법인)의 2017년 상반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19%, 24% 증가하였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각각 7%, 11%로, 삼성전자 제외시 법인 실적 증가율이 높지 않은 현상을 반영

### 부가가치세

- 2018년 부가가치세는 68.7조원으로 예산안(67.3조원)대비 1.3조원(2.0%) 높을 것으로 전망
  - 2018년 부가가치세 증가율(4.0%)은 예산안(7.7%)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기인
    - － 2017년 부가가치세수를 추경예산보다 3.4조원(5.5%) 높게 전망
    - － 부가가치세 전망의 전제가 되는 민간소비 증가율, 통관기준수출입 증가율 등이 NABO가 정부보다 낮게 전망한 것에 기인

## 기타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송용 유류 소비 둔화 전망을 반영하여, 예산안(16.4조원)보다 0.6조원(-3.5%) 낮은 15.8조원으로 전망

- 예산안은 추경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NABO는 이보다는 완만한 1.6% 증가세를 예상

[표 34] 2018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국세수입

(단위: 조원, %)

	정부		NABO		차이(NABO-정부)	
	2018 예산안	증감률 (2017 예산 <sup>1)</sup> 대비)	2018 전망	증감률 (2017 전망대비)	차이	차이율
총 국 세	268.2	6.8	272.1	4.5	3.9	1.5
일반회계	260.9	6.9	265.1	4.6	4.2	1.6
내국세	228.0	7.0	233.4	4.8	5.4	2.3
1. 소득세	73.0	4.9	75.7	3.9	2.7	3.7
2. 법인세	63.1	10.2	63.1	8.7	0.0	0.0
3. 상속증여세	6.2	2.1	6.9	4.0	0.8	12.3
4. 부가가치세	67.3	7.7	68.7	4.0	1.3	2.0
5. 개별소비세	10.1	11.9	10.4	4.0	0.3	2.8
6. 증권거래세	4.0	-0.5	3.9	-2.5	-0.1	-1.3
7. 인 지 세	0.9	5.9	0.9	-5.4	-0.1	-8.2
8. 과년도수입	3.4	-8.2	3.8	-6.5	0.4	11.3
교통·에너지·환경세	16.4	6.6	15.8	1.6	-0.6	-3.5
관 세	9.4	4.8	9.0	5.1	-0.4	-4.0
교 육 세	5.2	3.4	5.4	2.8	0.1	2.3
종합부동산세	1.8	25.8	1.5	2.5	-0.3	-16.6
특별회계	7.0	2.8	7.0	1.0	-0.3	-4.0
주 세	3.5	4.8	3.3	1.7	-0.2	-4.8
농 특 세	3.8	0.9	3.7	0.4	-0.1	-3.2

주: 1) 2017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다. 국세외수입

NABO 2018년 국세외수입 전망은 175.5조원으로 정부 예산안(178.9조원)을 3.4조원(-2.0%) 하회할 전망

### (1) 총괄

- 2018년 국세외수입은 175.5조원으로 예산안(178.9조원)대비 3.4조원(-2.0%)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차이는 NABO의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예산안 대비 각각 0.4조원, 3.0조원 낮기 때문으로, 세외수입 중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0.2조원)과 기금수입 중 사회보장기여금(-1.6조원), 재산수입(-1.1조원)에서 주로 차이 발생
- 세외수입은 26.3조원으로 예산안(26.7조원)대비 0.4조원(-1.4%)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영업수입 등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점을 반영하여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정부 예산안(6.9조원)보다 0.2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
- 기금수입은 149.2조원으로 예산안(152.2조원)대비 3.1조원(-2.1%)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경우 예산안보다 1.6조원(-2.4%)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회보장기여금 각 항목의 전망에 이용되는 거시경제 등 주요변수의 전제 및 전망모형의 차이에 기인
  -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는 추경예산대비 9.4% 증가한 46.4조원을 편성한 반면, NABO는 2017년전망대비 6.8% 증가한 44.7조원으로 전망
  - 재산수입은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에 대한 가정 차이 등으로 NABO는 정부보다 1.0조원 낮게 전망

[표 35] 2018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정부		NABO		차이(NABO - 정부)	
	2018 예산안	증감률 (*17예산대비)	2018 전망	증감률 (*17전망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외수입(I+II)	178.9	4.0	175.5	6.2	-3.4	-2.0
세외수입(I)	26.7	1.1	26.3	2.8	-0.4	-1.4
- 일반회계	10.9	5.8	10.7	2.0	-0.2	-1.3
- 특별회계	15.8	-1.9	15.6	3.3	-0.2	-1.4
기금수입(II)	152.2	4.5	149.2	3.4	-3.1	-2.1
사회보장기여금	69.3	11.8	67.7	10.8	-1.6	-2.4
- 국민연금	46.4	9.4	44.7	6.8	-1.7	-3.7
- 사학연금	3.1	6.9	3.1	6.3	0.0	0.1
- 고용보험	12.4	26.5	12.5	29.6	0.1	0.5
- 산재보험	7.3	5.8	7.4	11.0	0.1	0.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주요 항목별 비교

### 국민연금

□ 2018년 국민연금은 44.7조원으로 예산안(46.4조원)대비 1.7조원(-3.7%)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사업장 가입자 수 계획에 비해 NABO의 전망이 약 82만명(5.6%) 하회함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 수입은 2018년 계획 41.7조원에 비해 2.6조원(6.1%)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18년 사업장가입자수가 1,473만명으로 2017년 정부 계획에 비해 118만명(8.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NABO는 기존의 증가 추세 및 취업자 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1,391만명으로 전망함에 따라 차이 발생
-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수는 정부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기여금 수입은 각각 0.2조원, 0.6조원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
  -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의 특성상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그 증가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정부는 2017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



- 지역가입자수는 385만명, 평균기준소득월액은 133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지역가입자수 전망은 380만명으로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기준 소득월액은 132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사학연금

- 2018년 사학연금은 3.1조원으로, 예산안(3.1조원)과 동일한 수준
  - 정부의 직원 수 및 교원 수 전망 차이 및 기준소득월액 전망 차이가 좁혀지면서 정부 예산안과의 차이 감소

## 고용보험

- 2018년 고용보험은 12.5조원으로 예산안(12.4조원)에 비해 0.1조원(0.5%) 높을 것으로 전망
  - 정부 전망과의 차이는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과 보수총액 증가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
    -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 정부 2.2%, NABO 2.3%
    - 보수총액 인상률: 정부 3.6%, NABO 4.2% 적용

## 산재보험

- 2018년 산재보험은 7.4조원으로 예산안(7.3조원)대비 0.1조원(0.4%) 높을 것으로 전망
  - 2018년부터 자가용·도보 출퇴근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상승을 전제로 전망
  -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 및 보수총액 증가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 주요 요인
    -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은 정부 전망치(2.2%)보다 높은 2.5%, 보수총액 증가율도 정부(3.6%)보다 높은 4.2%로 전망



### III. 2017~2021년 총수입 전망

#### 1. 2017~2021년 중기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 2017~2021년 기간 중 국내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연평균 2.8%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민간소비는 2017~2021년 중 연평균 2.5% 증가할 전망
    - － 다만, 2020년부터는 성장률이 정체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영향이 증가세를 제약할 전망
  - 설비투자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과 연계된 IT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에 기인하여 2017~2021년 중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 정부의 SOC예산 축소가 지속되면서 2017~2021년 중 연평균 0.6% 증가에 그칠 전망
  - 세계 경제성장 및 교역 신장세 확대에 수출증가율은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2.8% 증가할 전망

[표 36] 실질GDP, 소비, 투자, 수출입의 중기 성장 전망 및 추이

(단위: 기간 평균 증가율, %)

	2002~2006	2007~2011	2012~2016	2017~2021
국내총생산	4.9	3.8	2.8	2.8
민간소비	3.5	2.8	2.0	2.5
설비투자	4.6	5.7	1.5	5.1
건설투자	3.5	-1.0	4.0	0.6
총수출	13.5	9.5	2.7	2.8
총수입	11.6	7.9	2.4	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국내경제의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취업자수의 증가 추세 유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은 국제수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경기회복세의 유지와 이에 기인한 임금상승 및 취업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입기반의 성장에 기여할 전망
- 완만한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는 부가가치세수 증가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던 자산시장 약화 가능성과 대외 경제의 변동성 등 향후 중기 국세수입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

- 최근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해 온 자산시장의 호조세가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 위험과 주택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호조세가 둔화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 여건은 빠르게 위축될 수 있음
- 대외적 불안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변동 가능성 등이 존재

## 2. 2017~2021년 총수입 전망

### 가. 총수입

총수입은 2017년 429.4조원에서 2021년 513.3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수입은 경상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안정적 증가와 가입자수 증가 등에 기인한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 증가로 2017년 429.4조원에서 2021년 513.3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017년 260.4조원에서 2021년 317.7조원으로 동 기간 경상성장률 전망(4.6%)을 소폭 상회하는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 －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던 자산시장의 둔화 가능성, 대외거래의 불확실성 등은 국세수입 증가율을 제약하는 위험요인
  - 국세외수입은 2017년 169.0조원에서 2021년 195.6조원으로 동 기간 경상성장률 전망(4.6%)을 하회하는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

- 국세외수입 증가폭의 높은 비중(59.5%)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직전 5년에 비해서 연평균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배당성향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에 기인하여 재산수입은 이전기간의 저조한 증가세(-0.8%)에서 벗어나 2017년 26.2조원에서 2021년 32.3조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 공무원·군인 연금 등의 보험료를 단계적 증가에 기인하여 경상이전수입은 2017년 35.3조원에서 2021년 40.7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전망

[표 37] 2017~2021년 NABO 전망과 정부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평균 [합 계]
NABO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4.6)
	국세수입	260.4	272.1	290.6	303.4	317.7	(5.1)
	국세외수입	169.0	175.5	181.0	188.0	195.6	(3.7)
	세외수입	25.5	26.3	27.0	27.7	28.6	(2.9)
	기금수입	143.5	149.2	154.0	160.3	167.0	(3.9)
	-사회보장기여금	61.1	67.7	72.0	76.3	80.7	(7.2)
	경상성장률	4.6	4.4	4.8	4.7	4.6	(4.6)
	국세탄성치	1.61	1.04	1.40	0.94	1.03	1.20
정부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5.0) <sup>1)</sup>
	국세수입	251.1	268.2	287.6	301.0	315.0	(5.8) <sup>2)</sup>
	국세외수입	172.0	178.9	183.8	191.0	198.5	(3.6)
	세외수입	26.4	26.7	28.1	27.4	26.7	(0.3)
	기금수입	145.6	152.2	155.7	163.6	171.8	(4.2)
	-사회보장기여금	62.0	69.3	73.9	78.3	82.9	(7.5)
	경상성장률	4.6	4.5	4.9	4.9	4.9	(4.8)
	국세탄성치	0.74	1.51	1.47	0.96	0.94	1.12
차이 (NABO-정부)	총수입	6.3	0.5	0.2	-0.6	-0.2	[6.1]
	국세수입	9.3	3.9	3.0	2.4	2.7	[21.3]
	국세외수입	-3.0	-3.4	-2.8	-3.0	-2.9	[-15.1]
	세외수입	-0.9	-0.4	-1.1	0.3	1.9	[-0.1]
	기금수입	-2.2	-3.1	-1.7	-3.3	-4.8	[-15.0]
	-사회보장기여금	-0.9	-1.6	-2.0	-2.0	-2.2	[-8.7]

주: 1) '17년 추경기준 '17~'21년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414.3조원 기준 '17~'21년 연평균 증가율 5.5%

2) '17년 추경기준 '17~'21년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242.3조원 기준 '17~'21년 연평균 증가율 6.8%

1. (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나.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2017년 260.4조원에서 2021년 317.7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 총괄

- 2017~2021년 간 국세수입은 260.4조원에서 317.7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하여 동기간 중 경상성장을 전망(4.6%)을 소폭 상회할 전망
  - 2019년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세증가율(6.8%)이 전년(4.5%)에 비해 1.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국세수입 탄성치는 2018년 1.04에서 1.40으로 상승할 전망
  - 법인 실적 부진 및 자산시장 정체시기를 포함하는 직전 5년(2012~2016)에 비해서는 국세수입 탄성치 및 연평균 증가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
    - 국세수입 탄성치 : 1.10→1.20/연평균 증가율 : 4.5%→5.1%

[표 38] 2017~2021년 경상GDP와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평균	
						2017~2021	2012~2016
경상GDP (증가율)	1,712 4.6	1,787 4.4	1,873 4.8	1,961 4.7	2,051 4.6	4.6	4.4
국세 (증가율)	260.4 7.4	272.1 4.5	290.6 6.8	303.4 4.4	317.7 4.7	5.1	4.5
국세부담률 <sup>1)</sup>	15.2	15.2	15.5	15.5	15.5	15.4	14.3
국세탄성치 <sup>2)</sup>	1.61	1.04	1.40	0.94	1.03	1.20	1.10

주: 1) 국세부담률 = 국세/경상GDP

2) 국세탄성치 = 국세 증가율/경상GDP 증가율

## (2) 주요 세목별 전망

### 소득세

- 취업자수와 평균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7년 72.9조원에서 2021년 92.0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이후 경상성장률, 취업자수 및 명목임금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건실한 증가세가 예상
  -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율의 하락세 전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여력 감소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율 둔화 등으로 지난 5년 평균증가율 10.6%(2012~2016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이자율 상승 및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2~2016년의 16.4%에서 -6.6%로 낮아질 전망
    - 과표양성화 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총납세인원대비 확정신고인원 비율은 2011년 73.0%에서 2013년 80.5%, 2015년 88.6%로 빠르게 상승해, 추가적인 상승여력은 작은 편

### 법인세

- 법인 영업실적 호조,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2017년 58.1조원에서 2021년 75.2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전망
  - 2017~2019년에는 법인실적 호조 및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연평균 8.7%~1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20년부터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전년대비 세수증가 효과가 사라지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 법인 영업실적의 부진이 이어졌던 2012~2014년이 포함된 2012~2016년의 연평균증가율 3.2%에 비해서는 다소 확대된 수준

## 부가가치세

□ 명목소비 증가에 따라 2017년 66.0조원에서 2021년 82.1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전망

- 명목민간소비 증가율이 2017년 4.0%에서 2021년 4.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관수입 증가율 역시 2017~2021년간 연평균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 4.6%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2018년 시행), 신용카드 대리납부 제도(2019년 이후 시행) 등 세법개정 요인도 부가가치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지방소비세율 인상(2014년)과 실적 감소(2015년)가 포함된 2012~2016년 기간의 연평균증가율 2.7%에 비해서는 다소 확대된 수준

[표 39] 2017~2021년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2017~2021	2012~2016
NABO 국세	260.4	272.1	290.6	303.4	317.7	5.1	4.5
일반회계	253.5	265.1	283.5	296.3	310.5	5.2	4.7
내국세	222.6	233.4	250.9	263.0	276.5	5.6	5.4
1. 소득세	72.9	75.7	81.6	86.7	92.0	6.0	10.6
2. 법인세	58.1	63.1	69.7	72.1	75.2	6.7	3.2
3. 상속증여세	6.6	6.9	7.2	7.6	7.9	4.3	7.4
4. 부가가치세	66.0	68.7	73.2	77.4	82.1	5.6	2.7
5. 개별소비세	10.0	10.4	10.5	10.5	10.6	1.5	13.6
6. 증권거래세	4.0	3.9	4.0	4.1	4.1	0.6	5.0
7. 인 지 세	0.9	0.9	0.9	0.9	0.9	-0.8	10.8
8. 과년도수입	4.1	3.8	3.8	3.8	3.7	-2.5	-7.9
교통·에너지·환경세	15.6	15.8	16.1	16.3	16.5	1.4	2.6
관   세	8.6	9.0	9.6	10.0	10.5	5.0	-4.9
교 육 세	5.2	5.4	5.4	5.5	5.5	1.4	1.3
종합부동산세	1.4	1.5	1.5	1.5	1.6	2.0	3.4
특별회계	7.0	7.0	7.1	7.1	7.1	0.7	-0.0
주   세	3.3	3.3	3.4	3.5	3.5	1.9	1.7
농 특 세	3.7	3.7	3.7	3.6	3.6	-0.4	-1.4



## 다.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가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증가(7.2%)에 힘입어 2017년 169.0조원에서 2021년 195.6조원으로 연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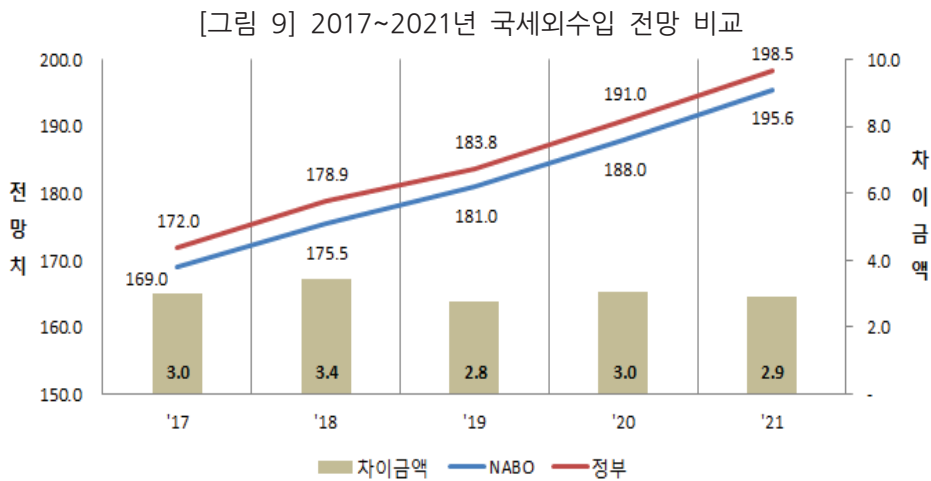
- 국세외수입은 2017년 169.0조원에서 2021년 195.6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추세는 세외수입 증가율이 2017~2021년 연평균 2.9%에 그치는 반면, 기금수입은 동기간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세외수입은 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완만한 증가로 2017년 25.5조원에서 2021년 28.6조원으로 연평균 2.9% 성장할 전망
  -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연평균 7.2% 성장에 힘입어 2017년 143.5조원에서 2021년 167.0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

[표 40] 2017~2021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가율 2017~2021
국세외수입(I+II)	169.0	175.5	181.0	188.0	195.6	3.7
세외수입(I)	25.5	26.3	27.0	27.7	28.6	2.9
일반회계	10.3	10.7	11.0	11.2	11.3	2.6
특별회계	15.3	15.6	16.0	16.2	16.5	3.0
기금수입(II)	143.5	149.2	154.0	160.3	167.0	3.9
사회보장기여금	61.1	67.7	72.0	76.3	80.7	7.2
- 국민연금	41.9	44.7	47.5	50.5	53.6	6.4
- 사학연금	2.9	3.1	3.3	3.5	3.6	5.5
- 고용보험	9.6	12.5	13.3	14.2	15.1	11.9
- 산재보험	6.6	7.4	7.8	8.1	8.4	6.0

- NABO의 국세외수입 전망치와 정부전망치 간 차이는 2017년 3.0조원에  
서 2021년 2.9조원으로 유사하게 유지
- 이는 정부의 2017~2021년 국세외수입 증가율(3.6%)과 NABO의 동기간 증  
가율(3.7%)가 유사하기 때문인데,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 재산수입의 일부  
전망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일한 수준
  - － 정부는 2018년 이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의 재산수입 편입규모를 매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주: 차이금액 = 정부 전망치 - NABO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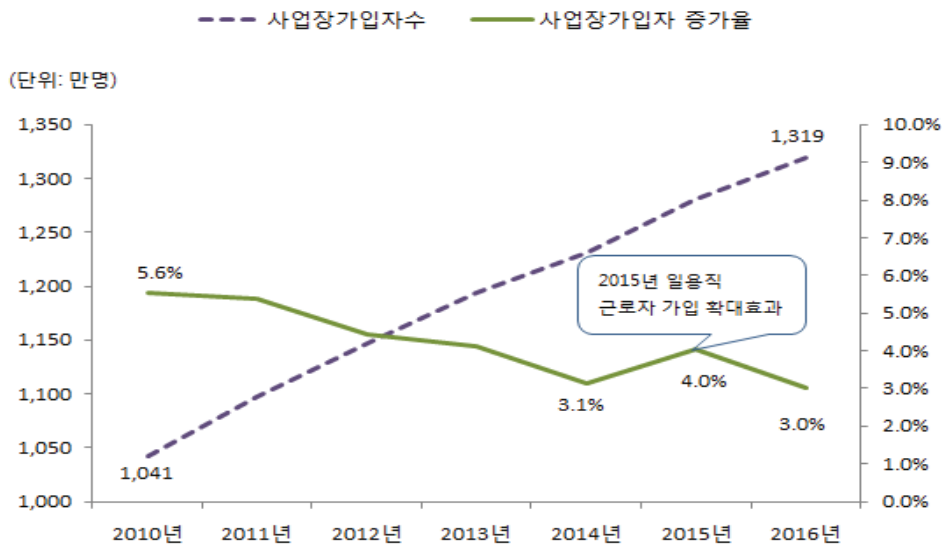
## (2) 주요 항목별 전망

### 사회보장기여금

- (국민연금) 2017~2021년 간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은 가입자 증가 및 기  
준소득월액 상승으로 41.9조원에서 53.6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2~2016년간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은 연평균 6.7%의 증가율로 증가
  - 2016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인구(15~60세) 중 주요 가입연령인  
20~60세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7년 이후 가입자 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에 따르면, 20~60세 인구는 2016년 3,150만명을 정점으로 2021년은 3,064만명으로 감소
- 실제로 사업장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긴 하였지만, 그 증가율은 2010년 5.6%에서 2016년 3.0%로 지속적 하락 추세
- 2015년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으로 사업장가입자수 증가율이 2014년 3.1%에서 2015년 4%로 높아졌으나 2016년 다시 3.0%로 하락

[그림 1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사학연금) 2017~2021년 간 사학연금 기여금 수입은 가입자 증가 및 기준 소득월액 상승으로 2.9조에서 3.6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한 기여금 부담률 상승 효과(매년 0.25%p 증가)가 반영되어 2017~2020년까지 기여금 수입은 연평균 6.3%로 증가하지만, 2020년 이후 기여금 부담률이 9%로 고정되면서 2021년 기여금 수입 증가율은 3.3%로 낮아짐
  - 2016년 법 개정으로 신규 편입된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 등의 영향으로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평균 2.4%)하지만, 교원은 증가율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학령기 아동수 감소 등으로 교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2013년 증가율이 2.2%였지만, 2016년은 오히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2016년간 연평균 0.6% 증가율 보임

[표 41] 사학연금 교원 수 추이: 2013~2016년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유치원	33,595	35,438	37,251	38,422	4.6%
	(9.6%)	(5.5%)	(5.1%)	(3.1%)	
초중고	65,098	64,032	61,848	60,436	-2.4%
	(-1.4%)	(-1.6%)	(-3.4%)	(-2.3%)	
전문/대학교	69,812	71,475	72,538	72,742	1.4%
	(2.5%)	(2.4%)	(1.5%)	(0.3%)	
기타	2,818	2,852	2,817	2,797	-0.2%
	(0.1%)	(1.2%)	(-1.2%)	(-0.7%)	
합 계	171,323	173,797	174,454	174,397	0.6%
	(2.2%)	(1.4%)	(0.4%)	(0.0%)	

주: ( ) 안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

자료: 사학연금공단, 「2016년 사학연금 통계연보」

- (고용보험) 고용보험 기여금은 적용근로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 보험료율 상향조정 등에 따라 2017년 9.6조원에서 2021년 15.1조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및 모성보호 강화대책에 따른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단가 인상으로 인한 실업급여계정 지출 급증에 대비한 보험료율 상향 조정 계획 반영
    -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여 2018~2021년간 기여금 수입 연평균증가율을 6.5%로 전망
    - 단,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여금 수입은 전망치보다 적어질 수 있음

- 적용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보수총액은 연평균 4.1% 증가를 전제
- (산재보험) 산재보험 기여금은 적용근로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2017년 6.6조원에서 2021년 8.4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부터 자가용·도보 출퇴근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상승을 전제로 전망
    - － 출퇴근재해의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는 2018~2021년간 기여금 수입 연평균증가율은 4.4%로 전망
  - 적용근로자 수는 연평균 3.1%로 증가하고 보수총액도 연평균 4.1%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
    - － 임의가입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근로자 수 연평균증가율은 1%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2017년 6.4조원에서 2021년 7.6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우편사업수입, 조달사업수입,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등은 기존 증가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제
  - 미곡판매수입은 최근의 미곡소비감소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수입 전망
  - 우체국예금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익은 향후 금리인상 등 수익률 증가로 2017~2021년 연평균 8.2% 증가하여 전체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증가 주도

## 재산수입

- 재산수입은 2017~2018년 기간 중 연평균 5.4%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1년 3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변동이 수입차이의 주원인이므로 현재 기준 정부의 전망치가 유지될 것으로 전제
  - 정부출자수입은 향후 배당성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 1%p 수준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추계
  - 기타 이자수입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수입(17년 기준 정부 예산안 재산수입 중 60.7%) 증가분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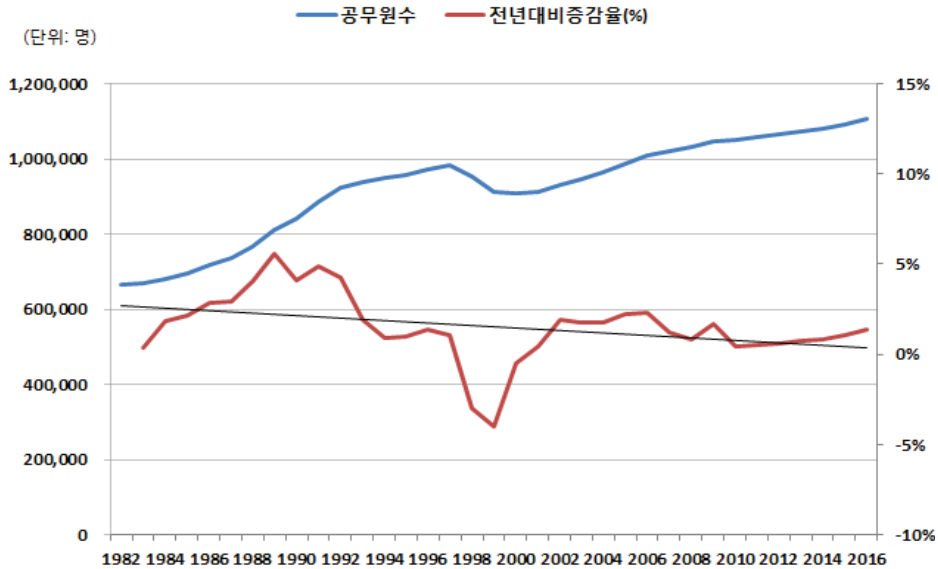
## 경상이전수입

-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연금 기여금수입을 중심으로 2017년 35.3조원에서 2021년 40.7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무원·군인 연금 등의 보험료를 단계적 증가에 따라 연금수입은 2017년 12.4조원에서 2021년 16.6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
    -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이후 9.0%
  - 경상이전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최근의 정채 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1.1% 증가 예상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수입은 가입자 증가 및 기준소득월액 상승으로 2017년 11.8조원에서 2021년 15.8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여 1% 내외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연평균 1% 수준으로 증가 가정<sup>20)</sup>
  -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보수율과 호봉 상승 등으로 효과를 포함한 처우개선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는데, 과거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3.9% 증가를 반영함에 따라 기여금 수입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 다만, 정부의 17만 4천명 공무원 증원계획의 경우, 정부의 기여금 수입 전망에 국가직공무원은 반영되어 있지만, 지방직공무원 증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NABO 전망도 지방직공무원 증원은 반영하지 않음

- 2020년 이후 기여금 부담률이 9%로 유지됨에 따라 2021년 기여금 수입은 기여금 부담률 인상 효과는 없지만,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sup>21)</sup>으로 2020년까지 동결되어 있던 연금액이 2021년부터 다시 상승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전금이 증가하여 기여금 수입(자치단체연금부담금)도 증가하게 됨

[그림 11] 공무원 수 및 증가율 추이: 1982~2016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연보」

- (군인연금) 군인연금 기여금 수입은 기준소득월액 상승으로 2017년 0.6조원에서 2021년 0.7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군인연금 가입자 수는 군인의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수는 일정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평균소득월액 수준은 군인연금의 치우개선율의 과거 추이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기여금 부담률 인상에 대한 법 개정이 없었으므로 기여금 부담률은 매년 7%를 동일하게 적용

21) 공무원연금법 부칙 <법률 제13387호, 2015.6.22.>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 3. 2017~2021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NABO(4.6%)가 정부(5.0%)보다 다소 낮게 전망
  - 경상 GDP 성장률을 NABO가(4.6%) 정부(4.8%)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데 기인
  - 규모로는 국세수입 부문에서 NABO가 정부보다 누적합계 21.3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국세외수입 부문에서 NABO가 정부보다 누적합계 15.1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총수입은 NABO가 정부보다 6.1조원 높을 전망
-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연평균 5.1%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5.8%<sup>22)</sup>)에 비해서는 소폭 낮을 전망
  - 다만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약화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 상존
    - 자산시장 호조세는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위험과 주택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하방위험 요인 확대
- 세외수입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연평균 2.9% 증가에 그칠 전망이나, 정부의 중기계획상 증가율(연평균 0.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성장 등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 계획상 증가율(연평균 4.2%)을 하회할 전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및 기금운용수입을 정부안보다 낮게 전망하는 데 기인

---

22) 2017년 국세수입을 추경예산(251.1조원)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 증가율이며, 본예산(242.3조원) 대비로는 6.8%



[표 42] 2017~2021년 NABO 전망과 정부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평균 [합계]
NABO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4.6)
	국세수입	260.4	272.1	290.6	303.4	317.7	(5.1)
	국세외수입	169.0	175.5	181.0	188.0	195.6	(3.7)
	세외수입	25.5	26.3	27.0	27.7	28.6	(2.9)
	기금수입	143.5	149.2	154.0	160.3	167.0	(3.9)
	-사회보장기여금	61.1	67.7	72.0	76.3	80.7	(7.2)
	경상성장률	4.6	4.4	4.8	4.7	4.6	(4.6)
	국세탄성치	1.61	1.04	1.40	0.94	1.03	1.20
정부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5.0) <sup>1)</sup>
	국세수입	251.1	268.2	287.6	301.0	315.0	(5.8) <sup>2)</sup>
	국세외수입	172.0	178.9	183.8	191.0	198.5	(3.6)
	세외수입	26.4	26.7	28.1	27.4	26.7	(0.3)
	기금수입	145.6	152.2	155.7	163.6	171.8	(4.2)
	-사회보장기여금	62.0	69.3	73.9	78.3	82.9	(7.5)
	경상성장률	4.6	4.5	4.9	4.9	4.9	(4.8)
	국세탄성치	0.74	1.51	1.47	0.96	0.94	1.12
차이 (NABO -정부)	총수입	6.3	0.5	0.2	-0.6	-0.2	[6.1]
	국세수입	9.3	3.9	3.0	2.4	2.7	[21.3]
	국세외수입	-3.0	-3.4	-2.8	-3.0	-2.9	[-15.1]
	세외수입	-0.9	-0.4	-1.1	0.3	1.9	[-0.1]
	기금수입	-2.2	-3.1	-1.7	-3.3	-4.8	[-15.0]
	-사회보장기여금	-0.9	-1.6	-2.0	-2.0	-2.2	[-8.7]

주: 1) 2017년 추경기준 '17~'21년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414.3조원 기준 '17~'21년 연평균 증가율 5.5%

2) 2017년 추경기준 '17~'21년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242.3조원 기준 '17~'21년 연평균 증가율 6.8%

1. (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IV. 세입예산안 주요사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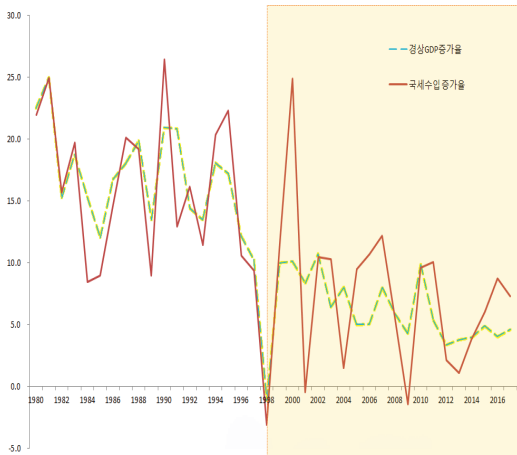
### 1. 국세수입 변동성 확대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 가. 국세수입 실적 변동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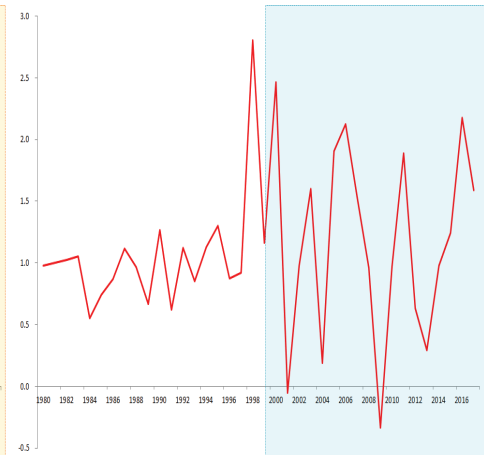
##### □ 2000년대 이후 경기변동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민감도 확대

- 1980~1990년대 국세수입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경상GDP 증가율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경상GDP 증가율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 폭이 커지고 일부 연도에서는 둘 간의 방향성도 불일치
- 이로 인해 경상GDP에 대한 국세수입 탄성치는 1980~1990년대 1.0 근처에서 수렴하다가 2000년대에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
  - － 국세탄성치의 표준편차: (1980~1990년대) 0.2 (2000년대) 0.8

[그림 12] 경상GDP 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



[그림 13] 국세탄성치 추이



## 나. 국세수입 실적 변동성 확대원인

### □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세항목의 비중 상승

- 법인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법인세 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기변동에 따른 조세수입 전체의 변동 폭이 커짐
- 총국세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1980년대 10%대에서 1990년대 14.6%로 상승한 이후 2000년대 이후는 21.3%로 상승

[표 43] 세목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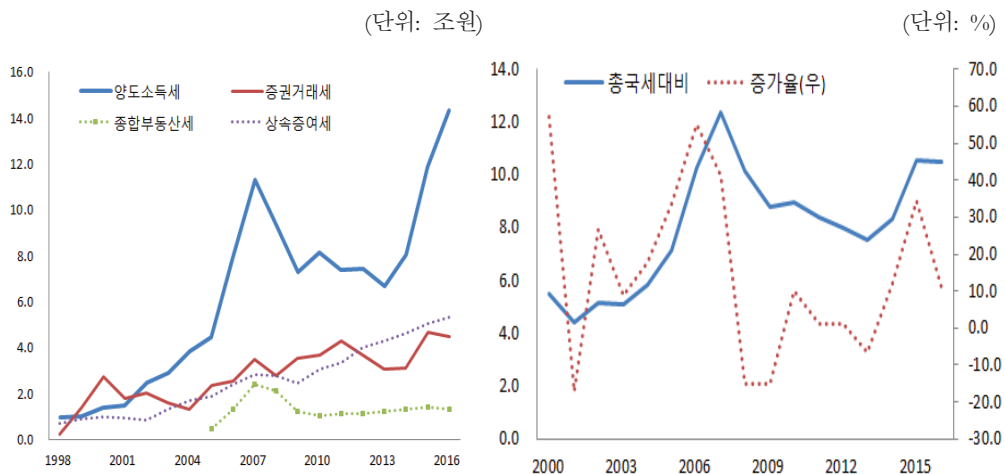
(단위: 국세 대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 타	총국세
1970년대	17.7	10.3	5.5	66.5	100.0
1980년대	12.9	9.8	24.3	53.1	100.0
1990년대	22.4	14.6	26.9	36.1	100.0
2000년대 이후	22.0	21.3	27.3	29.4	100.0

### □ 자산관련 세수의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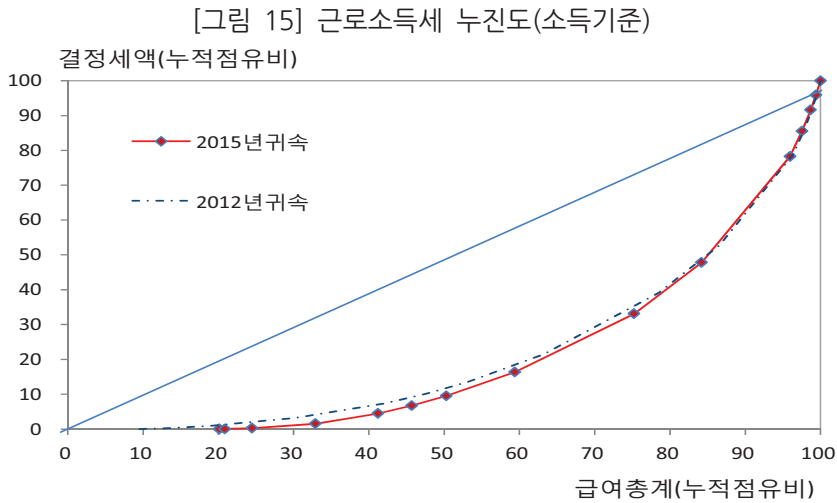
- 자산관련 세수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자산시장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관련세수의 급등과 하락 수반
- 자산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5%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4%까지 급등하였다가 2013년 7.6%로 하락한 후 최근 다시 10.5%로 반등

[그림 14] 자산관련 세수 추이



## □ 조세제도의 누진성 확대

- 조세제도의 누진성이 강할수록 경제성장이 빨라지면 재정수입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느려지면 재정수입은 더 빠르게 감소
- 최근 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및 법인세율 다층구조 등으로 조세제도의 누진성 확대



## □ 과세기반의 집중도 심화

- 과세기반이 협소할수록 재정수입이 일부 계층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른 조세수입 전체의 변동 폭이 커짐

[표 44]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만명, %)

	2012	2013	2014	2015
신고인원	1,576.8	1,636.0	1,668.7	1,733.3
과세자수	1,053.7	1,105.5	866.3	922.9
면세자수	523.1	530.5	802.4	810.4
신고인원 대비 비중	100.0	100.0	100.0	100.0
과세자수 비중	66.8	67.6	51.9	53.2
면세자수 비중	33.2	32.4	48.1	46.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법인세율 체계의 다층구조화 등은 조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세수안정성 측면에서는 재정수입이 경기 침체시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 배태

## 다. 국세수입 실적 변동성과 재정운용

- 재정수입의 경기탄력성은 재정의 경기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
  -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er)은 경제성장이 빨라지면 재정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느려지면 재정수입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재정수입의 경기동행성(pro-cyclicality)에서 발휘
  - 이 경우 재정수입의 경기동행성이 경기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상 밖의 경기침체시 국채를 늘리고 경기호황시 이를 상환해야함을 의미
- 그러나 실제 재정운용 모습에서 국세수입의 변동성 확대는 세수오차 확대로 이어져 이로 인한 재정운용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 (1) 세수오차 확대

- 국세수입 변동성 확대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
  - 2013년 이후 세수오차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세수입 실적의 변동성 확대가 오차율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
    - － 세수오차율(예산편성시점, %): (‘12)－1.4 (‘13)－7.2 (‘14)－5.3 (‘15)－1.5 (‘16)8.1 (‘17전망)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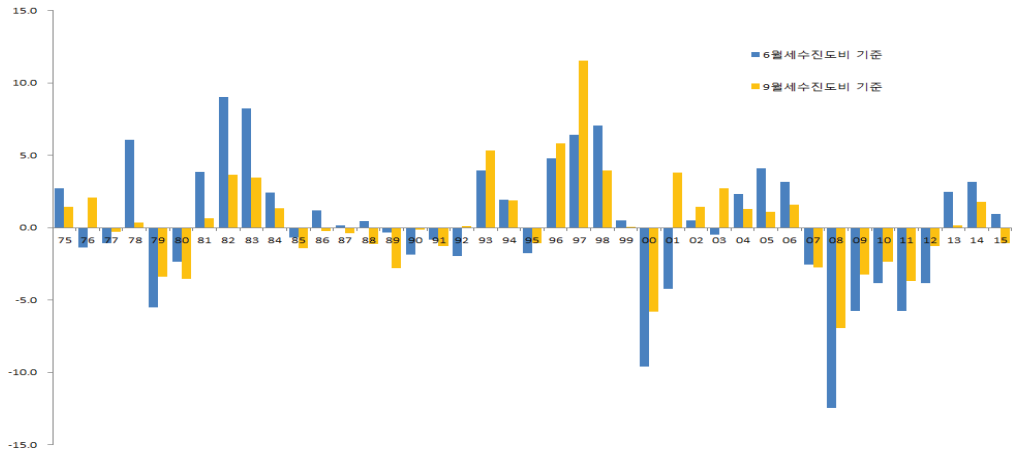
### (2) 세수 조절목적의 조세행정력 의존도 확대

- 세수변동성이 확대되어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조세행정력에 기반하여 세수입을 조정하는 경향성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음
  - 재량적 조세행정이 세수 규모에 미치는 크기는 작은 해의 경우 국세대비 2~3%, 큰 해의 경우 국세대비 6~7%에 해당<sup>23)</sup>

- 세수결손에 따른 행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세수입 조절을 위해 조세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징세행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

[그림 16] 조세행정력에 의한 국세수입 조정액 규모

(단위: 총국세수입대비, %)



주: 양(+)은 예년에 비해 징세행정을 강화한 연도를, 반대로 음(-)은 예년에 비해 징세행정이 약화된 연도를 나타냄

자료: 심혜정, 'Empirical evidence of the damaging discretionary behaviors of the tax administration; A Korean perspective', IIPF, 2017.8., W/P

### (3) 재정지출의 확대

□ 세수결손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하고,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 발생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이 편성되거나 다음해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성

- 세수결손 발생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경이 편성되면서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 확대
  - － 1980년~2013년의 과거 34년 동안 음(-)의 세수오차가 발생한 연도는 15개 연도이며, 이 가운데 1993년과 2012년을 제외한 13개 연도에서 추경편성<sup>24)</sup>

23) 심혜정, 'Empirical evidence of the damaging discretionary behaviors of the tax administration; A Korean perspective', IIPF, 2017.8., W/P

24) 물론 세수결손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시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경편성은 세수결손을

[표 45] 세수결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단위: %, 억원)

	세수오차율	추경 편성 여부	세입감액
1981	-1.3	○	
1982	-9.3	○	780
1985	-1.4	○	
1992	-3.2	○	
1993	-7.1		
1994	-0.4	○	
1996	-0.7	○	
1997	-7.5	○	15,907
1998	-11.7	○	85,751
2001	-0.1	○	
2004	-3.5	○	6,229
2005	-2.4	○	33,580
2009	-6.2	○	112,178
2012	-1.3		
2013	-6.7	○	120,318
평 균	-4.2		

주: 1. 1998년의 세입감액은 1차 -13,632억원(국세 -10,976억원), 2차 -72,119억원을 합한 금액임

2. 2009년은 수정예산시 -19,166억원의 세입감액이 있었으나, 이는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자료: 심혜정, 「세수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재정학연구, 2015., p.19.

- 한편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 발생시 다음연도 추경이 편성되거나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성
  - 실증분석 결과, 양(+)의 세수오차율과 다음연도 재정지출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자연스러운 경기대응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2007년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요건을 제한하기 전까지 외환위기 이후 평균 2년에 한번씩, 연 2회 이상 추경이 편성되어 왔음. 즉 경기와 무관하게 본예산에서 추정된 것보다 세수결손이 커지면 불가피하게 추경편성을 통한 국채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세수결손이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를 크게 했을 가능성



### [BOX 5] 실증분석: 세수오차와 재정지출간의 관계

#### □ 세수오차율과 재정지출 간의 상관관계 분석

$$Y_t = a + bX_{t-1} + cD \quad (1)$$

$$Y_t = \text{expr}_t - \text{expr}_{t-1} \quad (2)$$

$$X_{t-1} = (RT_{t-1}/BT_{t-1} - 1) \times 100 \quad (3)$$

식 (2)에서  $\text{expr}$ 은 실질지출 증가율, 식(3)에서  $RT$ 는 세수 실적을,  $BT$ 는 예산상 세수,  $D$ 는 외환위기(1998~1999)에 대한 기간 더미를 의미

#### □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b$ 의 추정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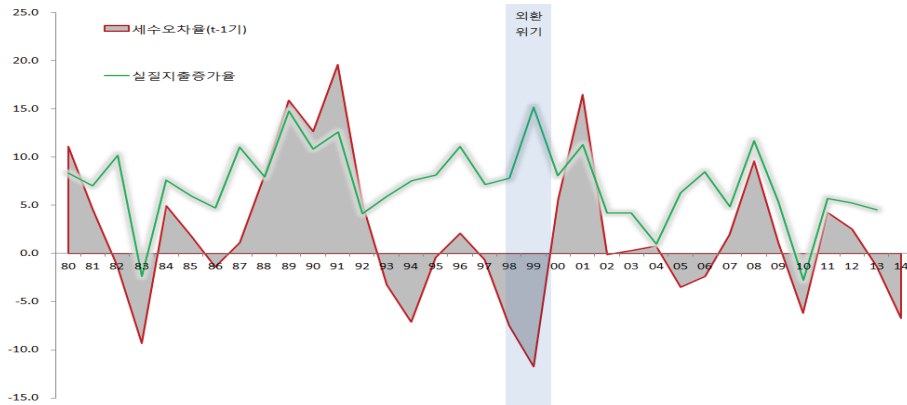
- 이는 전년도 세수오차율 값이 커지면 당해 연도 지출이 증가함을 의미

[표]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a)	-1.780	1.438	-1.238
전기 오차율 계수(b)	0.478	0.197	2.421
기간더미(c)	10.379	6.590	1.575
대상기간	1972~2013년		

[그림 17] 세수오차율과 재정지출 증가율

(단위: %)



주: 실질지출은 통합재정지출규모에 공적자금원금상환액을 차감하고 금융구조조정 지원액을 더한 값을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값임

#### (4) 재정운용상 비대칭성(asymmetry) 증가

-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재정지출의 확대에 이어지는 경향성은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이 경기 국면별로 비대칭적으로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
  - 재정정책이 바람직한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려면 경기확장기에는 긴축적으로, 경기수축기에는 확장적으로 운영되는 대칭성을 확보해야함
  - 우리나라 재정정책은 경기침체기에는 대체로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호황기에 안정화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즉, 경기호황기에는 정부가 긴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음)
    - － 침체기에 대체적으로 확장정책을 실시, 반면 침체기에 긴축정책을 실시한 해의 비중은 23.5%에 불과
    - －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확장정책이 시행된 해는 43.7%에 달해 경기호황기가 침체기에 비해 재정정책이 안정화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 또한 경기상승국면에 확장정책이 시행되었던 연도 중에 70%는 전년도에 세수과소추계로 양(+)의 세수오차율이 발생한 연도임을 확인
  - 재정정책이 대칭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려면 경기호황기에 안정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

## [BOX 6] 실증분석: 경기국면별 재정기조의 적절성 평가

- 재정기조 판단을 위해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sup>25)</sup>를 계산
- 1980년~2012년 중에서 침체기에 해당하는 연도는 총 17개 연도로서, 대체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침체기에 긴축정책을 실시한 해는 4개 연도로(23.5%) 분석
  - 같은 기간 동안 경기상승국면에 해당하는 연도는 총 16개 연도로서,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확장정책이 시행된 해는 7개 연도(43.7%)에 달함
    - 또한 경기상승국면에 확장정책이 시행되었던 7개 연도 중에 70%(5개 연도)는 전년도의 세수과소추계로 양(+)의 세수오차율이 발생한 연도

[표] 경기 국면별 재정기조의 적절성 여부평가

연 도	경기침체 국면				연 도	경기상승 국면				
	산출 격차	FI	재정 기조	적절성 여부		산출 격차	FI	재정 기조	적절성 여부	전기의 세수오차율
'80	-4.74	0.79	확대	적절	'81	0.69	1.34	확대	부적절	4.57
'82	-4.47	-1.12	긴축	부적절	'83	0.51	-2.28	긴축	적절	-9.32
'85	-1.16	-0.56	긴축	부적절	'84	0.67	-0.09	긴축	적절	4.96
'89	-2.49	0.79	확대	적절	'86	2.16	-0.35	긴축	적절	-1.40
'92	-3.57	-1.57	긴축	부적절	'87	2.16	0.10	확대	부적절	1.12
'93	-1.48	-0.70	긴축	부적절	'88	1.81	-0.26	긴축	적절	8.04
'96	-2.07	0.61	확대	적절	'90	2.94	1.28	확대	부적절	12.66
'97	-2.00	0.61	확대	적절	'91	2.31	1.19	확대	부적절	19.59
'98	-7.28	0.87	확대	적절	'94	2.58	0.19	확대	부적절	-7.12
'03	-1.50	1.82	확대	적절	'95	1.48	0.37	확대	부적절	-0.42
'04	0.32	0.37	확대	적절	'99	3.69	-0.51	긴축	적절	-11.75
'05	-0.80	0.10	확대	적절	'00	3.24	-1.91	긴축	적절	5.60
'06	-0.27	0.01	확대	적절	'01	0.11	0.19	확대	부적절	16.48
'08	-0.29	1.73	확대	적절	'02	1.35	-1.62	긴축	적절	-0.11
'09	-1.09	2.71	확대	적절	'07	2.46	-2.48	긴축	적절	1.97
'11	-0.50	-0.07	중립	적절	'10	2.98	-2.47	긴축	적절	-6.19
'12	-1.58	0.00	중립	적절						
부적절 연도/총연도(비율): 4/17(23.5%)					부적절 연도/총연도(비율): 7/16(43.7%)					

25) FI지표(Fiscal Impulse indicator)는 IMF에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서, 재정정책이 GDP를 증가시키는가(즉, 재정정책기조가 확장적인가) 또는 감소시키는가(즉, 긴축적인가)를 판단.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FI는 잠재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의 차분으로 정의

$$FI(t) = B^*_{(t-1)}/Y^*_{(t-1)} - B^*_{(t)}/Y^*_{(t)},$$

여기에서  $B^*$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

$Y^*$  = 잠재 GDP

## 라. 결론

-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비중의 증가, 누진도 확대 등으로 국세수입 실적의 변동성이 확대
  - 1980~1990년대 국세수입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경상GDP 증가율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경상GDP 증가율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 폭이 커지고 일부 연도에서는 둘 간의 방향성도 불일치
- 국세수입 실적의 변동성은 세수오차의 확대로 이어져 이로 인한 재정운용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 세수 조절목적의 조세행정력에 대한 의존도 확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재정지출의 추세적 증가 및 재정의 경기대응력 약화 등
-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수모형의 개선을 통해 세수예측력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신고샘플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세수추계 방식을 개발하고, 특히 변동성이 높은 법인세와 자산관련 세수추계 모형 개선 필요
    - － 국세청은 샘플자료 등 세수추계에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세수결손 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많지 않으나,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세수여건 호조시 안정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증대
  - 세수결손 또는 초과세수 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행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세입상황 및 재정운용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

---

구조적 재정수지( $B^*$ )는 실제의 GDP가 잠재 GDP( $Y^*$ ) 수준에 머물고 있을 경우의 재정수지를 의미. 실제 재정수지를  $B$ , 실제 GDP를  $Y$ 라 하면, 호황기( $Y > Y^*$ )에는 세수호조 및 실업급여지출 감소 등으로 실제 재정수지가 구조적 재정수지를 상회( $B > B^*$ )하고, 불황기( $Y < Y^*$ )에는 세수증가 둔화 및 실업급여지출 증가 등으로 실제 재정수지가 구조적 재정수지를 하회( $B < B^*$ ). 재정정책의 기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적 재정수지를 추정한 후 구조적 재정수지의 증감을 살펴볼 필요. 만일  $B^*/Y^*$ 가 증가( $FI < 0$ )하였다면 긴축기조라고 판단하고, 반대로 만일  $B^*/Y^*$ 가 감소( $FI > 0$ )하였다면 확장기조라고 판단.

- 경기 또는 세수여건이 좋을 때 안정화정책(긴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의 대칭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및 경기조절수단으로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증대시킬 필요

### [BOX 7] 해외사례: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

- 세수입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운용
  -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가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호황기에 재정수입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여 불황기에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데 활용하는 것임
  - 기금규모와 기금운용방법은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량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경기 침체기에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인디애나 주에서는 실질소득증가율이 2% 이상일 때 재정수입을 기금에 적립해야하며, 실질소득 증가율이 -2% 이하일 때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국민연금 2018년도 기여금 수입 계획안은 46조 4,099억원으로 2017년도 계획에 비해 3조 9,9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9.4%의 증가율 보임
  - 사업장가입자의 2018년도 기여금 수입 계획안은 41조 6,897억원으로 2017년도 계획에 비해 3조 8,6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10.2%의 증가율 보임
  - 지역가입자의 2018년도 기여금 수입 계획안은 3조 5,854억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3.4%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2016년 실적 보다 1,880억원이 낮은 수준
  - 임의가입자의 2018년도 기여금 수입 계획안은 2017년도에 비해 35억원 높은 1조 1,348억원으로서 2016년도 실적에 비해 4,553억원 낮은 수준

[표 46] 2018년도 국민연금 가입자유형별 기여금 수입 계획안

(단위: 억원, %)

	2016년 실적 (A)	2017년 계획 (B)	2018년 계획 (C)	증감	
				증감액(C-B)	증감률(C-B)/B
국민연금 기여금	390,358	424,187	464,099	39,912	9.4
사업장가입자	337,904	378,201	416,897	38,696	10.2
지역가입자	36,553	34,673	35,854	1,181	3.4
임의(계속)가입자 등	15,901	11,313	11,348	35	0.3

주: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금액은 반납·추납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의 2013~2016년간 계획 및 실적을 분석해보면, 기여금 수입 계획은 연평균 7.8%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실적은 7.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수납률도 2013년 97.1%에서 2016년 94.8%로 낮아지고 있음
  - 전체 기여금 수입 중 가장 큰 비중(90%, 2018년 계획안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13~2016년 기여금 수입 계획은 연평균 8.4%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적은 연평균 6.7% 증가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납률도 2013년 97.3%에서 2016년 92.6%로 낮아짐
    - 이는 전체가입자의 기여금 수납률 94.8% 보다 낮은 수준

[표 47] 2013~2016년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기여금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평균증가율
전체	계획(A)	328,444	359,001	385,370	411,819	7.8
	실적(B)	319,067	340,775	364,261	390,359	7.0
	차이(B-A)	-9,377	-18,226	-21,109	-21,460	-
	수납률(B/A)	97.1	94.9	94.5	94.8	-
사업장 가입자	계획(A)	286,354	311,652	340,022	365,058	8.4
	실적(B)	278,484	297,320	317,166	337,904	6.7
	차이(B-A)	-7,870	-14,332	-22,856	-27,154	-
	수납률(B/A)	97.3	95.4	93.3	92.6	-
지역 가입자	계획(A)	30,780	34,231	35,406	35,695	5.1
	실적(B)	32,868	34,054	34,915	36,553	3.6
	차이(B-A)	2,088	-177	-491	858	-
	수납률(B/A)	106.8	99.5	98.6	102.4	-
임의(계속) 가입자	계획(A)	11,310	13,118	9,942	11,066	-0.7
	실적(B)	7,715	9,401	12,179	15,901	27.3
	차이(B-A)	-3,595	-3,717	2,237	4,835	-
	수납률(B/A)	68.2	71.7	122.5	143.7	-

주: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금액은 반납·추납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수입 실적이 계획에 비해 낮은 주요 요인은 사업장 가입자 수의 증가 추세가 계획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1,339만명의 사업장가입자가 가입하여 연평균 4.0%로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실적은 1,319만명이 가입하면서 연평균 3.6%로 증가하였음
  - － 실적의 경우 2012년 이후 계획에 비해 실제 증가된 인원이 적었으며, 2015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가입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50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 다시 38만명 수준으로 낮아짐

[표 48] 2012~2016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만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2016 평균증가율
계획(A) (전년대비)	1,146	1,203 (57)	1,259 (56)	1,313 (54)	1,339 (26)	4.0
실적(B) (전년대비)	1,146	1,194 (48)	1,231 (37)	1,281 (50)	1,319 (38)	3.6
차이(A-B)	-0.6	8.8	28.8	32.3	19.1	

주: 계획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이며, 실적은 연도별 「국민연금 통계연보」 자료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201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이와 같이 사업장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및 2018 계획 수립시 과거 실적과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장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반영함에 따라 NABO의 전망과 정부의 계획(안)간 차이 발생

- 국민연금의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1,473만명까지 사업장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기여금 수입이 41조 6,89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NABO의 전망에 따르면 1,391만명까지 사업장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기여금 수입이 39조 1,39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와 NABO의 전망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장가입자 수 전망인데, 정부는 2017년 계획에 비해 2018년에 118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NABO는 47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새정부의 2018년 고용증가 계획 등이 실현되고,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8년 사업장가입자 수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인 118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함
  -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계획과 실적의 차이 및 NABO의 취업자 수 전망<sup>26)</sup> 등을 감안할 때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 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6) NABO의 전망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수는 2017년에 비해 약 31.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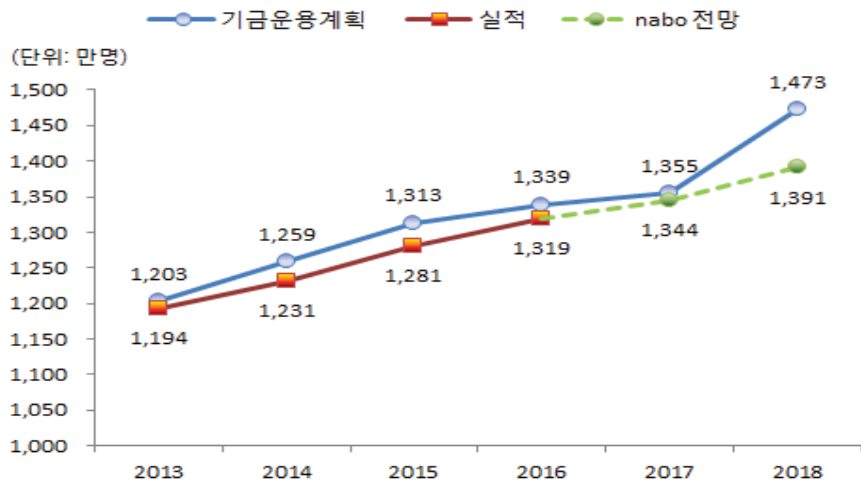


[표 49] 2017~2018년 사업장가입자 가입자 수 및 기여금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만명, %)

	가입자수			기여금 수입		
	2017(A)	2018(B)	증감(B-A)	2017(A)	2018(B)	증감(B-A)
기금운용계획(C)	1,355	1,473	118	378,201	416,897	38,696
NABO전망(D)	1,344	1,391	47	366,419	391,393	24,974
차이(C-D)	11	82		11,782	25,504	

주: 계획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이며, 실적은 연도별 「국민연금 통계연보」 자료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201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그림 18]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계획 및 NABO 전망 비교



- 따라서 정부는 사업장가입자 수의 연례적 과대 추계로 인해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수입이 과대 편성되고 수납률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가입자 수 추정 방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 국세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국세외수입의 예결산 차이는 2011년 3.9조원(3.1%)에서 2013년 0.4조원(0.3%)까지 축소되었다가 2016년 9.2조원(5.5%)까지 확대되는 추세
  -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최근 수납률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편성하기 때문

[표 50] 국세외수입 예결산 차이 추이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A)	126.6	137.5	150.3	152.9	161.9	168.3
결산(B)	130.5	138.6	149.9	150.9	153.9	159.1
차이(C=B-A)	3.9	1.1	-0.4	-2.0	-8.0	-9.2
오차율(C/A)	3.1	0.8	-0.3	-1.3	-5.0	-5.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부는 2018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을 178.9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NABO는 이보다 3.4조원(-1.9%) 낮은 175.5조원이 수납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에서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벌금·몰수금·과태료, 부담금 등이, 기금수입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주로 부족수납액의 원인

[표 51] 2018년 국세외수입 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차이(NABO - 정부)	
	2018 예산안	증감률 (17예산대비)	2018 전망	증감률 (17전망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외수입(I+II)	178.9	4.0	175.5	6.2	-3.4	-1.9
세외수입(I)	26.7	1.1	26.3	2.8	-0.4	-1.5
-일반회계	10.9	5.8	10.7	2.0	-0.2	-1.4
-특별회계	15.8	-1.9	15.6	3.3	-0.2	-1.5
기금수입(II)	152.2	4.5	149.2	3.4	-3.1	-2.1
-사회보장기여금	69.3	11.8	67.7	10.8	-1.6	-2.3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부의 낙관적 예산편성은 정확한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며, 부족수납규모 확대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필요한 사업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 야기
  - 국세외수입의 부족수납은 재정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수 있으나, 재정총량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국가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양될 필요
- 향후 정부는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의 수납률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 경제의 저성장세와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국세외수입의 세입여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점을 감안할 필요
- 다음에서는 예결산 차이가 지속적으로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기로 함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정부는 우정사업수입 금융영업수익률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2013~2016년 동안 세수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의 경우 결손액이 1.3조원에 달함
  - 우체국예금을 기본으로 한 우정사업 자산운용액은 2012년 60.3조원에서 2017년 66.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산운용 수익률은 2012년 5.10%에서 2016년 2.71%로 하락
  - 정부는 금리하락, 주식시장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매년 희망적으로 전망하여, 2013~2016년 4년 동안 세입결손이 발생
  - 특히 2014~2016년의 세입결손액은 예산액 대비 28.9~42.3% 수준인 0.9 ~ 1.3조원에 육박

[표 52] 우정산업본부 금융영업수익 관련 현황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산운용액	602,920	617,882	607,955	625,508	637,098	663,012 <sup>1)</sup>
수익률	5.10	3.93	3.82	3.32	2.71	3.24 <sup>1)</sup>
예산(A)	22,142	28,072	29,461	30,834	30,261	26,955
결산(B)	24,439	27,580	20,961	21,518	17,473	
차이(C=B-A)	2,298	-492	-8,501	-9,316	-12,788	
오차율(C/A)	10.4%	-1.8%	-28.9%	-30.2%	-42.3%	

주: 1) 2017년 1/4분기 실적기준

자료: 우정사업본부 디브레인(dbrain)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편, 정부는 미곡판매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2014~2016년 동안 부족수납 발생

- 미곡판매수입은 정부 관리양곡을 군관수용, 학교급식용, 기초수급자 등의 용도에 따라 판매하여 얻음
- 미곡판매수입은 2013년 8,489억원에 달한 후 군인수 및 급식아동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6년 4,655억원으로 감소 추세
- 예산은 2012~2016년 동안 6,919억원으로 고정하여 편성하다가 2016년 6,597억원, 2017년 5,810억원 등 예산을 현실화
- 다만, 정부의 예산 감액폭이 작아서 2014~2016년 동안 예산액 대비 22.5~29.4% 수준의 부족수납이 지속적으로 발생

[표 53] 미곡판매수입 부족수납 현황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A)	6,919	6,919	6,919	6,919	6,597	5,810
결산(B)	6,512	8,489	5,364	5,002	4,655	
차이(C=B-A)	-407	1,570	-1,555	-1,917	-1,942	
오차율(C/A)	-5.9%	22.7%	-22.5%	-27.7%	-29.4%	

자료: 디브레인(dbrain)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예산 과대편성 및 수납률 저조 문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
- 2016년 기준으로 벌금 및 과료 -3,425억원, 과태료 -795억원, 몰수금 및 추징금 -720억원, 과징금 -685억원 등 모든 항목에서 부족수납액 발생
  - 연간 부족수납액 규모는 최소 1,703억원에서 최대 8,266억원까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 해당 세출의 불용 혹은 이월을 초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무부(52%)와 경찰청(23%)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표 54]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예·결산 추이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A)	31,974	32,706	36,867	36,988	36,855	35,664
결산(B)	25,321	31,003	28,601	32,511	29,397	30,038
차이(C=B-A)	-6,654	-1,703	-8,266	-4,477	-7,459	-5,626
오차율(C/A)	-20.8%	-5.2%	-22.4%	-12.1%	-20.2%	-15.8%

자료: 기획재정부 디브레인(dbrain)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부담금의 예결산 차이 과다

- 90개 부담금 중에는 반복적으로 예·결산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이 다수 발견
- 2016년 전체 부담금 19.7조원 중 86.2%인 17.0조원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며, 기금(13.7조원, 81%) 및 특별회계(3.2조원, 19%)로 각각 배분
    - 부담금운용과 관련하여 중합계획서가 2014년 9월 이후 매년 국회에 제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의 경우 2년 동안 1천억원 이상의 부족수납액 발생

- 농지보전부담금은 2년 동안 8,538억원의 초과수납 발생
- 개발부담금의 경우, 2015년에는 1,820억원의 부족수납이, 2016년에는 589억원의 초과수납이 각각 발생하는 등 세입전망의 정확성이 결여

[표 55] 예결산 차이가 큰 주요 부담금 항목

(단위: 억원)

주요 항목	2015			2016		
	예산 (A)	결산 (B)	차이 (C=B-A)	예산 (A)	결산 (B)	차이 (C=B-A)
연례적 부족수납 주요항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 판매부과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4,194	18,812	-5,382	25,160	17,939	-7,221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지역발전특별회계)	2,800	1,056	-1,744	2,800	1,172	-1,628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393	7,272	-1,121	8,569	7,147	-1,422
연례적 초과수납 주요항목						
농지보전부담금 (농지관리금)	8,099	11,000	2,901	6,951	12,609	5,657
개발부담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3,550	1,730	-1,820	1,366	1,955	58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96	1,190	293	1,006	1,490	48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921	1,332	410	1,327	1,798	471

주: 괄호 안은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자료: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안정적인 중장기 재원대책 마련 필요

- 복지제도 성숙 및 재정의 역할 확대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확대 예상
  -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
    - －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향후 5년간 재정투자액은 178.0조원

[표 56]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단위: 조원, 2018~2022년 합계)

지출 소요		재원대책	
< 국비 지출소요 계(A)>	151.5	① 세입확충	82.6
① 지출증가	135.1	- 세수확충	77.6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88.5	초과세수	60.5
-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46.6	비과세 정비 등	17.1
② 제도설계 후 추진	16.4	- 세외수입 확대	5.0
< 교육세·교육교부금 >	26.5	② 세출절감	95.4
		- 지출구조조정	60.2
합 계(A+B)	178.0	합 계	178.0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 최근 국세수입은 법인실적 개선 및 자산시장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
  - 금리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 상존
    - － 자산시장 호황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에 세수는 성장률에 비해 높은 탄성으로 증가하였다가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때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향(심혜정, 2017)<sup>27)</sup>

27) 심혜정,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재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17.5.

[표 57]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 경기확장 국면

(단위: %)

해당 기간에 자산시장 호황이 있었는지 여부	경기순환기	확장기 (저점~정점)	경상GDP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국세수입 탄성치
자산시장 호황 이 있었던 경우	제5순환기	89.7~92.1	18.7	25.6	1.4
	제8순환기	01.7~02.12	10.7	12.8	1.2
	제9순환기	05.4~08.1	6.5	9.7	1.5
	제11순환기	13.3~	4.3	6.4	1.5
	단순 평균		10.0	13.6	1.4
자산시장 호황 이 없었던 경우	제6순환기	93.1~96.3	17.6	13.7	0.8
	제7순환기	98.8~00.8	10.0	11.3	1.1
	제10순환기	09.2~11.8	7.6	7.1	0.9
	단순 평균		11.7	10.7	0.9

- 주: 1. 경기순환기 구분은 통계청 경기순환기를 기준으로 설정함  
 2. 경상GDP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은 해당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3. 국세수입 증가율 산출기간은 징세시차(6개월~1년)를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임  
 4. 국세수입에는 분석대상 기간 중에 신설되었거나 일정기간 유지되다가 폐지됨으로써 증가율에 일시적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세목(방위세, 전화세, 전매익금, 교통세, 농특세)을 제외

[표 58]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 경기수축 국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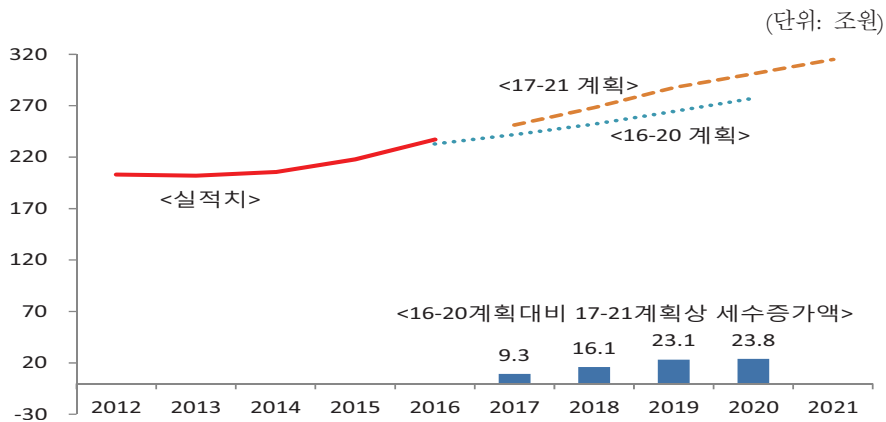
해당기간 직전의 경기 확장기에 자산시장 호 황이 있었는지 여부	경기순환기	수축기 (정점~저점)	경상GDP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국세 탄성치
자산시장 호황이 있었던 경우	제5순환기	92.1~93.1	14.4	11.7	0.8
	제8순환기	02.12~05.4	6.5	5.7	0.9
	제9순환기	08.1~09.2	4.3	-0.4	-0.1
	단순평균		8.4	5.6	0.5
자산시장 호황이 없었던 경우	제6순환기	96.3~98.8	4.4	4.6	1.0
	제7순환기	00.8~01.7	8.3	14.4	1.7
	제10순환기	11.8~13.3	3.4	2.9	0.9
	단순평균		5.4	7.3	1.2

- 주: 1. 경기순환기 구분은 통계청 경기순환기를 기준으로 설정함  
 2. 경상GDP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은 해당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3. 국세수입 증가율 산출기간은 징세시차(6개월~1년)를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임  
 4. 국세수입에는 분석대상 기간 중에 신설되었거나 일정기간 유지되다가 폐지됨으로써 증가율에 일시적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세목(방위세, 전화세, 전매익금, 교통세, 농특세)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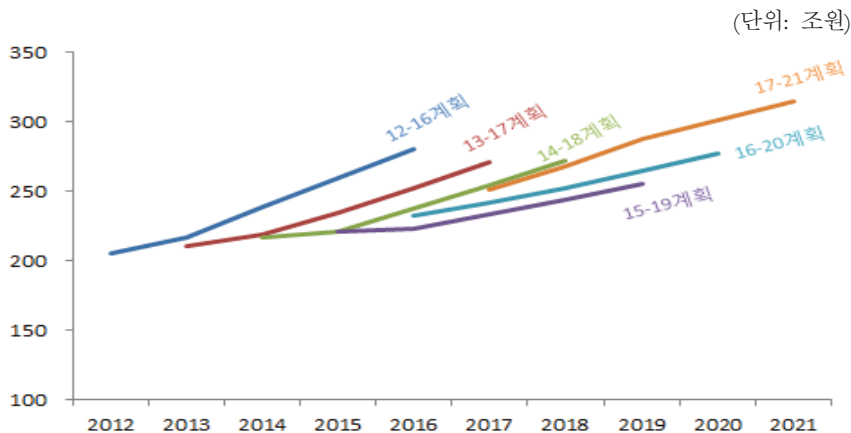


- 구조적 초과세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항구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제시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 초래 가능성
  -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대책 중 초과세수 60.5조원은 최근의 국세수입 회복세를 기반으로 상향조정된 2016~2020년 계획대비 2017~2021년 계획상 세수증가액을 의미
  - 한편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수입 전망치는 2012~2016년 계획에서 2015~2019년 계획까지는 매년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오다가 2016~2020년 계획부터 상향조정되는 등 불확실성 내포
- 사회투자 및 경기조절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유지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체계를 갖출 필요

[그림 19] 국세수입 전망 및 실적



[그림 20] 연차별 중기 국세수입 전망





##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발간일 2017년 11월 2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명문기획 (tel 02 · 2275 · 5373)

---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4744)

---

ISBN 978-89-6073-468-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

